

아주대의료원 소식

3

2013

통권 제218호 / 발행일: 2013. 3. 1. / 발행인 겸 편집인: 蘇義永 / 발행처: 아주대학교의료원 홍보팀 / (443-721)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전화: 1688-6114

· 목 차 ·

- 2 포커스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받아
- 3 선인재 칼럼
아주대 의대와 얽힌 미시사(微視史)
- 4 특별기고
나는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쳤는가?
- 6 책과 김영병 27
모른다고 말해야 할 때
- 8 전문센터 소개
유방암센터
- 10 우리 병원 어떻게습니까
아주대학교병원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 11 특집
잘못된 생활습관은 '독',
'약' 이 되게 고쳐보자
- 24 건강Q&A
고막천공 수술
- 25 AMC News
- 30 의료원 발전 후원명세
- 32 외래 진료 시간표

새로운 시작이 되시길 ...



새로운 시작은 모든 이를 설레게 합니다.

이 새로움을 맞이하기 전에는 보내드리는 아쉬움이 따릅니다.

남아있는 이들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로는 감사의 마음을 충분히 전할 수가 없습니다.

떠나는 날까지 마지막 열정을 태우시며 제자와 후배를 가르치시고 아주대학교의료원의 기틀을 마련하신 분들의 손길을 잊지 않겠습니다.

떠나시는 분의 길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시길...

이 아쉬움이 매워질 수 있도록

훗날 모두에게 아름답게 기억되는 아주대학교의료원이 되어

그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받아



▲ (위)김금례 여성가족부 장관(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과 표창장을 수여 후 기념 촬영을 했다. (아래)경기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는 제7회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지난 2월20일 아주대학교병원 본관 로비에서 캠페인을 벌였다.

경기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센터장: 유희석 아주대학교병원장)가 지난 2월 22일 폐렴타워에서 열린 제7회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2년도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평가에서 경기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데 따른 것으로, 장관 표창을 받은 우수 기관은 경기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총 7곳이다.

경기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경기지역 여성 및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그리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2006년에 여성가족부, 경기도, 경기지방경찰청, 아주대학교병원 3자가 협약을 맺어 운영하는 기관이다. 이곳에서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상담, 의료, 수사, 법률에 관한 지원이 365일 24시간 무료로 제공된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0일에는 경기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가 본관 1층 로비에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그 대처와 예방에 대해 교육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였다. 아동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이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매년 2월 22일을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아주대학교병원을 찾은 고객과 교직원 5백여 명이 「아동 성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갖겠다」는 서명에 동참했고, 행사장에서는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동영상 상영하는 등 아동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아동보호의 중요성을 고취시켰다.

경기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찾은 성폭력 피해자 중 아동과 청소년은 2007년 279명에서 2012년 627명으로 약 2.3배 증가했으며, 이들 성폭력피해자에 대해서는 상담 3,216건, 의료지원 1,197건, 수사 1,052건, 사회적 지원 348건 총 5,813건이 지원되었다.

아주대 의대와 얽힌 미시사(微視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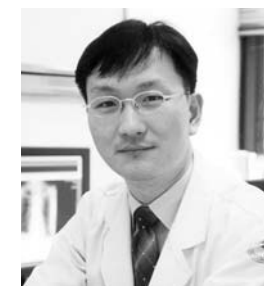
역사란 게 큰 즐거리를 따라가는 정사가 주(主)일 수밖에 없지만 몸으로 부딪치면서 그 시대를 산 사람의 소소한 이야기를 듣는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언젠가 내 기억에서 사라지기 전에 의과대학과 얽힌 미시사(史)를 하나 말하고 싶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이 만들어 진지 얼마 안 된 때이던 1990~1991년 시절의 이야기다. 그 당시 우리 동기는 그 때까지 완공되지 않았던 송재관(당시 명칭은 의학관이었다) 대신 율곡관 1층 강의실 하나를 빌려 기초의학과 초반기 임상의학강의를 받았다. 당시 학생들에 대한 학장님 이하 모든 교수님의 열의와 배려는 각별하였지만 아무래도 제집 살림이 아닌 얹혀시는 처지인지라, 왜 있잖은가? 마치 안 맞는 옷에 내 몸을 맡긴 것 같은 느낌. 율곡관을 오갈 때 저 너머 의과대학 건물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속히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다렸던 기억이 난다. 이런 조바심과 기다림 끝에 우선 1차로 4층까지 건물이 지어졌고 드디어 강의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 건물에 발을 들여놓고 특유의 새 건물 냄새를 맡으며 모두들 감개가 무량했었다. 리모델링이 시급한 지금의 송재관 형편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다. 당시 많은 내외빈을 모시고 치른 준공식은 지금도 송재관 2층 벽 한편에 사진과 서명판으로 존재의 증거가 남아있다. 지어진 지 얼마 안됐을 무렵 1층 로비 구석에서 개구리와 뱀이 발견된 일은 그 때의 모습을 보지 못한 분들이라면 아마 안 믿을지도 모르겠다. 원래 터가 워낙 개구리가 많이 살던 수풀 밭이라 그랬던 건가 싶다.

아무튼 모든 이의 기대를 안고 문을 열은 의과대학 건물이었지만 엉뚱하게도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서 학교 내의 화제의 대상이 되었었다. 관심의 대상은 다름 아닌 의과대학 화장실에 비치된 화장지였다. 그 전까지 아주대학교 내 모든 화장실의 화장지는 거친 재질의 회색 재생지였고 의과대학 화장지는 흰색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학교 안에서 적지 않은 수근거림이 있었다. 의과대학 편이라고. 자기들은 회색 화장지 쓰는데 왜 너희만 흰 거 쓰냐고. 돌이켜 보면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당시 의대와 병원에 투자하느라 상대적으로 타 대학에 대한 투자가 소홀한 거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던 때인지라 화장지 사건은 상당히 반향이 컸었다. 거친 반면 질기지 못한 회색 화장지를 쓰면 더 헤프게 쓸

수밖에 없어 흰색 화장지를 쓰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이다라는 화장실 관리대행 업체의 해명에 파장이 서서히 가라앉기는 했지만 관심 받지 못하고 차별 받는다는 의식이 은연 중 있던 많은 타 단과대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였던 사건이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당시 눈앞의 현안에 관심을 기울이느라 대외적인 소통의 문제에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의과대학 구성원이 주위를 둘러보는 계기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일방적인 손해를 감수하지는 의도 아니지만, 공동체 내 타인의 정서를 헤아리고 상처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은 사회인, 특히 보건의료인이라면 더욱 스스로 북돋아야 해야 하는 덕목 중 하나가 아닐런지. 나 또한 해를 거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란 말을 맘 속에 점점 더 깊게 새기며 살려고 노력한다. 우리 구성원 모두 동료간, 직종간, 의사-환자간 모두에서 이런 맘을 앞세우며 산다면 좀 더 서로를 이해하는 선한 공동체로 우리가 한번 더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신승수 교수 / 학생부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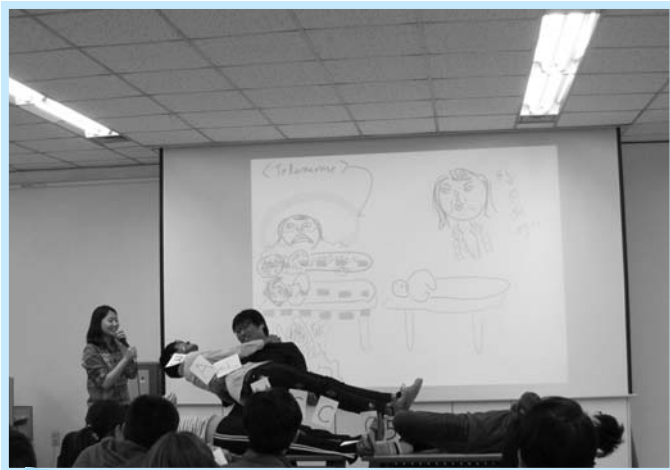
나는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쳤는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실은 2011학년부터 3년째 학생들의 강의평가와 책임교수의 평가, 의학교육실 평가 점수를 합산하고 강의시수를 고려하여 ACME 통합교육 종합평가 우수교수를 선정하고 있다. 2012학년도에는 생화학교실 이재호 교수, 신경과학교실 문소영 교수, 중앙혈액내과학교실 박준성 교수, 호흡기내과학교실 박광주 교수, 생화학교실 윤계순 교수가 우수교수로 선정되었다. 5명의 우수교수를 대표하여 생화학교실 이재호 교수에게 강의법을 들어본다.

최 근 생각지도 않았던 우수교수상 수상이라는 소식에 놀라움과 함께 큰 기쁨을 느낀다. 열정을 갖고 강의를 준비하며 전달력에 있어서도 나무랄 바 없는 젊은 교수님들을 최근 들어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에 놀랍고, 운도 따라주었지만 평소 교육 잘 했다고 주는 상이 가장 영광스러운 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기쁘다. 부족하지만 내 경험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주대학교의료원이 교육기관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도 될 수 있겠다는 취지에서 이 글을 쓴다.

2012학년도 내 강의가 어땠는가? 내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약간의 참신성이 가미되었던 것 같다. 내가 강의를 할 때 이전부터 갖고 있던 목표는 「학생들이 이해하는 강의를 하자」이다. 나는 기초의학인 생화학을 가르친다. 생화학은 생명현상을 분자 수준에서 이해하고 설명하는 학문이다. 임상 선생님들이 생화학에 대해 회고할 때, 대부분의 경우 「어려웠다」는 반응이 먼저 나온다. 따라서 이해도를 높이는 것, 그것이 첫째 고려사항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썼다.

내가 강의하는 대상은 그리 영어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것 본과로 진입한 학생들이다. 이 점을 감안해서 처음 나오는 말은 영어로 한 번 말하고 한글로 연이어 말한다. 「hydrophobic interaction, 즉 소수성 결합」같은 식이다. 둘째로 개념 설명에 있어 다양한 비유를 든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적절한 비유를 미리 생각해 둔다. 남용하면 「과유불급」이지만 적절한 비유는 이해도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셋째로 학생들의 눈치를 살핀다. 알아듣고 있는지 아닌지 학생들의 반응과 얼굴 표정을 보면 판단할 수 있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다시 설명한다. 조금



▲ 노벨생리의학상 업적의 내용과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의과대학생들의 촌극 장면.

다른 단어와 표현, 가능하다면 다른 예시나 비유를 써 본다. 그러면 대개 알아듣는다. 넷째로 원리의 설명에 주안점을 둔다. 낱말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피곤한 일이며, 재미도 없다. 워낙 많은 양을 다루게 되기 때문에 압도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핵심 원리에 주력하면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는 대사 과정, 예를 들어 해당과정, 시트르산 회로, 지방산의 분해와 합성 등 골치 아프고 매사가 지엽적인 것처럼 보이는 내용조차도 잘 들여다보면 자꾸 반복되는 정석 같은 것이 있다. 마지막으로, 강의하는 분들이라면 모두들 사용하는 방법이겠지만 좋은 그림이나 동영상, 직접 보여주는 동작 등이 있으면 이를 활용한다. 때로는 학생을 불러내서 나와 같이 간단한 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아주 직관적으로 학생들에게 개념을 보여 줄 수도 있다.

2012학년도에는 흥미로운 교육법을 시도를 해 보았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은 임상과 기초를 연계하여 우리 몸의 체계별로 가르치는 통합교육을 시행한다. 내분비과정, 심장학과정, 신경과학 과정같은 식이다. 통합교육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각 과정이 시작되기 전, 통합교육소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강의 계획을 브리핑한다(시험 보는 분위기는 아니다. 대략 도와주려는 분위기?). 내가 맡았던 몸의 구성성분 과정의 진행 계획을 설명할 때였다. 이비인후과 정연훈 위원장이 역대 노벨상 수상 업적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하면 어떨겠는가 하는 제안을 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걸 좀 재미있는 방법으로 시도해보자는 생각을 했다. 『촌극을 해보자!』 학생들이 미리 시간을 들여 촌극을 준비하면 투입한 시간 대비 교육효과가 떨어질 것이기에 주초에 각 조별로 배당된 년도의 노벨생리의학상 업적의 내용과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미리 공부해 오라고만 했다. 의학교육실-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진행을 전문성을 갖고 도와주기 위해 의학교육실을 두고 있다-에서 종이와 필기구, 가위, 투명테이프를 준비해 주었고, 이를 활용해서 자율학습 시간 4시간 중 두 시간을 할애해 각 조별로 퍼포먼스를 구상해 보도록 했다. 연극이든 노래든, 어떤 형식이든 업적의 내용과 그것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나머지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평가는 평가지를 나눠주고 다른 조 동료들이 조별 평가를, 같은 조 동료들이 개별평가를 하게 하였다. 2시간 남짓의 공연시간(?) 동안 우리 학생들은 즐겁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당시의 반응을 보나 이후 강의평가 결과를 보나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데는

명백한 성공이었고, 해부, 생화학을 연달아 숨 가쁘게 진행해 온 학생들에게 약간의 청량제가 되었다는 점도 명확해 보였다. 다만 시간 대비 교육효과가 컸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총체적으로, 숨 가쁘게 진행되는 본과 1학년 1학기 중간에 한 번의 쉽표 같은 시도였다고 생각한다.

「이해도 높은 강의, 그것은 강의자라면 모두가 공유해야 할 그야말로 일반적인 목표일 것 같다. 「촌극, 그것은 「강의효과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 정도로 바꿔 말 할 수 있을 것 같다. 「당연한 기본과 약간의 변화를 위한 시도, 그것이 2012학년도 내 강의를 요약한 한 마디이다. 며칠 전 TV에서 한창 인기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봤다. 거기 나온 00 뮤지션이라는 재능 있는 친구들의 음악에 대해 『익숙한 코드 진행을 위주로 하면서, 거기 더해 한 가지 남들이 잘 안하는 코드 진행을 썼다』는 취지로 심사위원이 칭찬하는 것을 들었다. 「뻔한 기본에 충실하면서 약간의 변화를 가미하는 것, 분야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공식인 듯하다. 어찌 보면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비약일까? 「기본에 충실하면서 창의성을 가미하는 것, 이 말의 의미를 다시 곱씹어 본다.



이재호 주임교수 / 생화학교실



모른다고 말해야 할 때 젊은이의 변모, 한스 카로사 1928 / 범우사 2003

– 나는 종종 엷보았던 아버지의 행동대로 의사처럼 해내고 왼쪽 장지로 세계 누르기도 하고, 바른쪽 장지로 재빨리 여기저기 두들기기도 했다. 그러나 가시 돌친 풀 때문에 손이 부어 올라, 나는 청진에 중점을 두고 등이나 가슴에다 귀를 댔다. 그제야 어떤 소리로든 내장의 병을 진단해 내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들리는 소리는 밖의 뱃전과 바위에 부딪쳐 울려오는 거대한 파도 소리뿐이었다.

– 지금부터 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나는 유리관을 꺼내서 환자에게 두 시간마다 한 알씩 먹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치료 효과의 조건이 되는 주의 사항을 기억하고 있는 대로 모조리 지켰어 댔다.

– “필로카르핀은 결코 보통약이 아니다. 극히 적은 양을 주었을 때만 치유력을 발휘한다. 대량으로 주면 심장을 치명적으로 약하게 만든다.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는 말이야.” 아버지는 이것을 강조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 환자는 어린애가 아니었던가? 왜 어제 나는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어른의 분량을 주었을까?

– 나의 고백과 의혹을 아버지는 침착하게 듣고 계셨다. 그리고 내가 그 아이의 연령조차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을 뿐이었다.

– “그 아이에게 단지 약만 주고, 간단한 주의만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진짜 의사처럼 진찰했다니 정말 주체넘구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 아버지의 진찰은 내가 한 시간과 비교하면 거의 4분의 1도 걸리지 않았다. 더군다나 다뉴브 강이 아무리 미친 듯이 날뛰어도 들을 것이 분명했다. 마지막에 아버지는 내게 샤아레에다 요오드팅크를 준비하도록 이르시고 붓을 그것에다 적서 소년의 등에다 조그마한 갈색 동그라미를 그렸는데 그때 코에 익은 용액의 호도있 같은 냄

새가 풍겨 내게 신기한 신뢰감을 주었다. 그리고 필요한 조치가 즉시 취해졌다. 주사바늘이 들어가자 소년은 꿈틀거렸으나, 소리는 내지 않고 입술만 내민 채 마치 장난을 치는 듯이 매우 높은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벌써 투명한 액체가 가득 찬 유리 주사기는 빛을 향해 비쳐지고 있었다. “단지 물 뿐이야. 아무 것도 아닌 물이야” 하고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어. 그러나 왼쪽

가슴은 목까지 이 물로 가득 차 있군. 아마도 몇 주 전부터일 거야. 심장은 눌러서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야. 이제 이 아이의 호흡이 괴로운 이유를 아시겠죠?” “이런 상태로선 우리 아이가 준 그 좋은 약으로도 효험이 없었을 거예요” 라고 아버지는 말씀을 계속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내게 집중시켰다. 여태까지 이런 자랑스러운 말을 들은 일은 한 번도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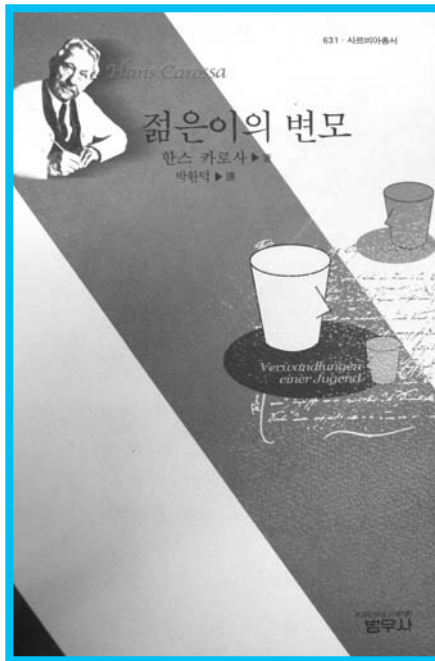
– “절대로 삼출액을 흉강에 피게 해선 안됩니다. 하루만 늦었더라도 이 아이의

심장은 멎어 버렸을 겁니다. 지금 곧 뽑도록 하죠.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한 시간쯤이면 끝날 테니까요. 호흡은 편해지고, 혈액 순환의 부담도 가벼워집니다. 그 후에는 내장이 진짜 아픈지,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지를 틀림없이 알게 될 겁니다.”

– 수술을 위한 물을 끓이고, 그 뒤에 커다란 관을 찢었을 때, 외마디 소리를 질렀으나 곧 얽전해져서 긴 고무 호스를 통해서 몸에서 나오는 액체가 둥근 유리병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을 기쁜 듯이 놀란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다. 소년은 곧 조금씩 증대되는 해방감을 느꼈다. 흉강 속의 압력을 빨리 감소시켜 위험을 조래하지 않도록 조심성 많은 아버지가 이따금 고무 호스를 눌러 멈추게 하자,

소년은 초조해 했다. 소년은 조금 전보다 지친 것처럼 창백해 보이기는 했으나 아버지는 경과가 좋다고 말하고, 돌발적인 기침이 종종 나오는데 그것도 좋은 징조라고 여기고 있는 듯 했다.

– 아버지는 오랫동안 입을 열지 않으셨으나 마침내 이상스럽게 격렬한 어조로 내게 훈계하셨다. 아버지는 배 위에서만 아주 빈틈없이 나를 변호해 주셨던 것이다. 이를테면 약간 창피한 꼴을 당할 것을 적당히 얼버무려주고 싶다고 생각하는 젊은 동료들 대하는 것처럼. 그러나 지금 단둘이 되자 아버지는 새삼스럽게 나를 나무라시고,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마치 병을 연극처럼 다루어 의사인 체 탈선 행위를 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런 것을 속임수라고 하는 거야. 다만 이상한 일은 어린 아이들이 그 속임수를 어른보다도 더 잘 간파한다는 거지. 아직은 분명치 않으니까 말이야. 그러나 초심자는 결코 사람을 속여서는 안돼. 특히 의사일 경우엔. 사람을 속였다면 너는 어제 속인 셈이야. 그러면 감각이 흐려지지. 그래서 어린 아이는 어른보다도 분량을 적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잊게 된 거야. 의사에게는 다년간의 연구와 경험이 필요하다. 다만 비교하면서 경계하며 대가가 되는 것이지. 학리를 따라야 해. 속이지 않고 말야. 이런 일이 항상,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부정한 의사와 대가를 구별하는 기회가 되지. 여기에 의사의 품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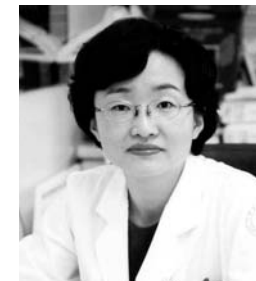


한스 카로사(1878-1956)는 할아버지대부터 의사였다. 자신이 의과 대학에 입학하기 전 10살~19살까지의 글이 「젊은이의 변모」인데 다니던 학교에서 퇴학 비슷한 것을 당하고 집에 와 있던 중에 강에서 비스듬히 앉아 열이 나면 헛소리를 하고, 호흡이 괴로운 가난한 사내아이를 만난다. 그 애의 어머니와 같이 있던 여자 친구의 청으로 얼떨결에 의사 흉내를 내고는 아버지께 혼나는 장면이다.

19세기 말에 의사들이 귀를 가슴에 대고 청진하고 두드리는 장면, 흉강에 고인 흉막액을 유리주사기로 뽑아 보고 액체를 확인하고 물 끓여관을 넣고 천천히 흉막액을 빼내는 장면이 차근차근 그려져 있다. 그 팬 그렇게 했나 보다. 그랬을 것이다. 물을 한꺼번에 안 빼려고 눌러 멈추게 하는 장면도 인상 깊다. 우리도 그랬지. 한꺼번에 다 빼면 혼났다. 지금은 시술하려고 물을 끓이지 않는다. 유리주사기는 박물관에 있겠다. 고무 호스는 아직 쓰이지. 흉강에서 뺀 물이 맑은데 삼출액(exudate)이라 하니 머리가 꼬인다. 여출액 또는 누출액(transudate)이라 해야 할 텐데, 원어로는 무엇일꼬?

귀에 청진기는 꽂고 들고 있지만 이것이 원래 그런 것인지, 바람 소리인지 내 숨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도 아는 척 얘기하려고 했다. 환자의 말을 듣고 진찰을 하고 나면 의사는 병명을 다 알 줄로 생각했는데 정작 내가 의사가 되고 보니 아는 것 보다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래도 되는 것인가?

3월이다. 초심자들이 넘쳐 난다. 그들의 심장 소리가 귀에 쿵쿵거린다. 무서울 것이다.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르면 모른다 말해야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야 감각도 흐려지지 않을 것이다.



최영화 주임교수 / 감염내과학교실

위 글에 소개된 도서는 의학문헌정보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책과 감염병」 전 시리즈는 아주대학교병원 홈페이지(<http://hosp.ajoumc.or.kr>) 「유명인과 질병」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병」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려고 노력하는 곳... 아주대병원 유방암센터

아주대학교병원 유방암센터(센터장: 외과 정용식 교수)는 최근 늘고 있는 유방암의 조기 발견과 정확한 진단을 통해 환자별 맞춤형 치료를 실시하고, 유방암의 치료율을 높이는 동시에 유방암 치료 후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유방암센터는 현재 교수 및 임상강사 12명과 유방암 전문 간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유방암의 특성상 외과, 종양혈액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등 전문 교수진으로 구성된 다학제 진료팀(Multidisciplinary Breast Team)을 두고 매주 회의를 열어 각 환자에 최적화된 치료법을 찾고 있으며, 그 외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과도 긴밀하게 협진체제를 유지하며 최고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유방암센터는 유방암의 신속한 진단을 위해 초음파와 조직 검사를 유방암센터와 영상의학과 양쪽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유방암이 의심되는 환자는 당일 영상검사 및 응급세포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풍부한 수술 경험이 낳은 높은 생존률

유방암센터는 2000년 유방클리닉 개소 이후 3천 건 이상 유방암 수술을 시행했다. 해마다 수술 환자수가 꾸준히 늘어 2012년 한해동안 약 5백여 명이 수술을 받았다. 수술방법의 비중도 초기에는 유방 전절제술과 유방 보존술이 비슷하였으나, 해마다 유방 보존술의 비중이 늘어나 현재는 환자의 75% 정도가 유방 보존술을 받아 수술 후 삶의 질적인 측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정용식 교수는 미국 워싱턴대에서 연수한 경험을 토대로 종양성형술(Oncoplastic Surgery)을 시행하여 기존 유방 보존술보다 월등한 미용적 결과를 보여 환자의 수술 후 만족도가 높다. 김구상 교수는 종양성형술 외에도 내시경을 이용한 유방 절제술(Endoscopic Mastectomy) 및 고주파 열치료(RFA: Radiofrequency Ablation) 등을 통해 피부의 상처를 최소화하고 미용적 결과를 높이는 최신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액와부 림프절에 대한 치료도 진단 당시에 액와부를 정밀검사하여 세침흡인세포검사(Fine Needle Aspirarion Biopsy)를 통해 전이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전이가 없는 경우에는 감시 림프절 생검술(Sentinel Lymph Node Biopsy)로 수술하면서 재차 확인하여 전이가 있는 경우에만 액와부 광철술(Axillary Lymph Node Dissection)을 시행함으로써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림프부종 등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있다.



유방암 진료비 전국에서 제일 싼 곳 = 정확한 수술로 빠른 회복

유방암센터는 배액관이 없는 유방암 수술 환자의 경우 수술 다음날 퇴원하여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유방 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에도 3~4일 내에 퇴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2012년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0년 1년간 전국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유방암 진료비 정보」에 따르면, 유방 부분절제술의 경우 전국 종합병원 평균은 219만 원인데 반하여 아주대학교병원은 이보다 100만 원 가량 싼 121만 원에 불과했다. 유방 전절제술의 경우에도 전국 평균이 313만 원인데 반해 아주대병원은 244만 원으로 70만 원 가까이 비용이 낮았다. 수술비용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합병증도 적은 정확한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렇다 보니 재원일수도 짧아서 부분절제술의 경우 전국 평균은 7.1일인데 비해 아주대학교병원은 3.7일, 유방 전절제술의 경우에도 전국 평균은 9.7일인데 비해 아주대학교병원은 이보다 4.3일이 짧은 5.4일을 기록했으며, 이 같은 결과로 전국의 모든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유방암 치료에 관한 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높은 생존율, 우수한 치료 성적

1994년부터 2007년까지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 받은 유방암 환자 1,680여 명을 대상으로 치료 성적을 조사하니 모든 병기를 포함하는 5년

무전이 생존율(Distance metastasis free survival)은 88.7%였다. 5년 무전이 생존율을 병기별로 분류하여 평가하니 1기 유방암은 96%, 2기 유방암은 89.1%, 3기 유방암은 75.6%로 매우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병기별 재발율도 1기 5%, 2기 12%, 3기 26%로 전국 평균 재발률과 비교할 때 1기는 비슷하고 2기와 3기는 재발율이 낮았다. 이는 젊은 여성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2,3기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던 점을 감안해 볼 때 탁월한 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치료법의 적용

유방암은 단일 치료가 아닌 다양한 방법의 치료를 복합적으로 시행하는 대표적인 암이다. 유방암센터는 종양혈액내과, 방사선종양학과와 다학제 회의와 공동 진료를 통해 적절한 치료의 조합과 순서를 결정하고 있다. 수술 전 선행 화학 요법의 경우 주로 종양혈액내과의 강석운 교수가 담당하고 있고, 선행 화학 요법을 통하여 유방 전절제술 대신 유방 보존술을 받을 수 있는 환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2011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단 당시에는 유방을 보존할 수 없는 전절제술 대상이었으나, 수술 전 선행 화학 요법을 통해 유방을 보존하는 유방보존술을 받을 확률이 50%까지 올라가게 되는 획기적인 결과를 얻었다. 또 각종 임상연구를 통하여 환자에게 앞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유방암센터에서 진행되는 유방암 임상연구만도 40여 개에 이르러 유방암 치료를 선도하는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다.

유전성 유방암 상담 지역 거점 병원

유전성 유방암은 전체 유방암의 10%를 차지하고 있고, 유전성 유방암의 80% 정도가 BRCA1/2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 발생한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BRCA1/2 유전자 돌연변이의 유병률과 위험도 등에 대한 정보가 있지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는 이런 연구가 없었다. 국가암정보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코호트연구인 「한국인유전성유방암연구(KOHBRA)」와 관련하여 2011년 2월에는 아주대학교병원이 유전성 유방암 상담 거점병원으로 선정됨으로써 유전성 유방암의 진단 및 치료는 물론 BRCA1/2 유전자 돌연변이 환자와 그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상담까지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거점병원이 되었다.



정용식 / 아주대학교병원 유방암센터 교수



김구상 / 아주대학교병원 유방암센터 교수

활발한 연구 및 학술 활동

다양한 임상연구를 통한 의학의 발전과 환자의 치료선택권 보장은 유방암센터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현재 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 중인 임상 연구가 40여 개에 이르고, 제4상 연구에서부터 국제적인 제2상 혹은 제1상 연구에 이르기까지 그 폭도 방대하다. 이는 여러 기관이나 임상시험 주체 측에서 유방암센터의 임상연구 진행능력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유방암센터는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병인을 찾으려는 기초의학연구,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을 통한 자료분석을 기본으로 하는 의료정보학과의 공동연구, 기초와 임상을 연결하는 이행연구 등 의학분야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전방면에 걸쳐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도 이런 연구경험과 학술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유방암센터 전 교수는 각종 학회의 연차나 좌장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이는 다학제 진료에서 발전하여 다학제 연구까지 이어진 모범적 사례이자 역할 모델이 되고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유방암센터

유방암센터가 매년 두세 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찾아가는 유방암검진」 행사는 올해로 6년째를 맞았다. 지역사회의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 행사는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참의료로 재조명 받고 있으며, 다른 병원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환우 및 지역주민을 위해 「유방암 교실」도 매달 경기지역암센터에서 열고 있으며, 김구상 교수의 강의와 「무엇든 물어보세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의료진이 함께하는 열린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다.



김구상 교수 / 유방암센터



아주대학교병원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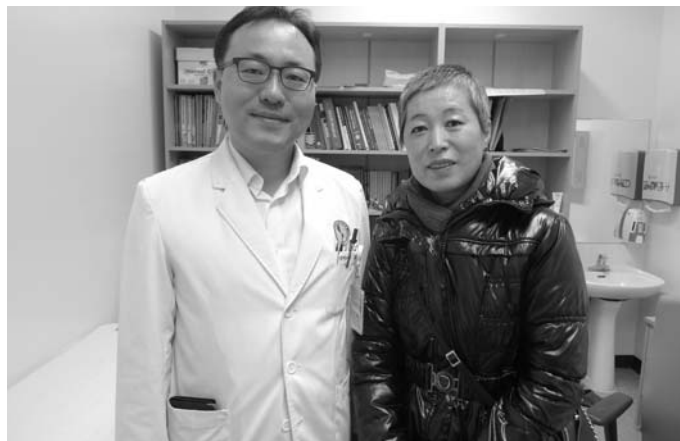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학교병원에 입원했던 김미양 환자의 남편되는 사람입니다. 제 아내는 지난 2012년 8월 14일 갑작스런 뇌출혈로 구급차에 실려가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출국한 상태라 소식을 접하자마자 급히 아들과 함께 16일 한국에 왔습니다. 아주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는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머리에 붕대를 감고 얼굴과 오른쪽 눈은 퐁퐁 부어 있었고, 도저히 제 아내라곤 믿기 힘들만큼의 상태였습니다. 여태껏 한 번도 병원에 가 본적 없는 아내가 이렇게 누어있다니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들은 아내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트렸고 그 순간 젖어든 눈시울을 억지로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아내의 왼팔과 왼다리는 무력하여 감각을 잃었고, 의식은 있지만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는 등 정신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저는 그 동안 모아둔 돈으로 치료해보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 치료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내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 호전되는 듯 보였으나 다시 병이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희 가족은 모든 치료 방안을 임용철 교수님과 임연희 선생님께 맡기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매일 아침과 오후 저녁마다 회진하시고 상담하면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하며 아내의 치료를 위해 만전을 기하셨습니다.

다행히도 제 아내는 하루하루 몰라보게 호전되었습니다. 사람도 알아보고 기억력도 차츰차츰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스스로 밥도 먹고 조금씩 걷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 아내는 9월 25일 퇴원했습니다.

입원하여 치료하는 동안 교수님께서서는 뇌동맥류에 대해서 뇌혈관 조영술을 추천하셨습니다. 당시 저희의 가정형편은 어려웠고 차후에 지불해야 할 아내 치료비를 걱정하며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사업팀 박미정 선생님이 우리 형편을 어떻게 아셨는지 저희를 찾아와 진심으로 상담해주시면서 앞으로의 치료비를 함께 고민해 보자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10월 19일, 제 아내는 뇌출혈에 기인한 안구 유리체 출혈 때문에 안과



▲ 신경외과 임용철 교수와 김미양 환자.

이기황 선생님께 두 번째 수술을 받았고 건강한 눈으로 회복하여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안과 수술비와 치료비는 사회사업팀 박미정 선생님과 동료들이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1월 24일 재입원하여 26일 두개골 결손부에 대한 두개골 자기골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세 번째 수술 역시 잘 되었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수술을 하고 난 후 제 아내는 이제 시장도 혼자 갈 만큼 매우 좋아졌습니다. 새 생명을 찾아준 임용철 선생님의 정성어린 치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변사람들과 다른 환자분들도 기적이라면 서로 같이 웃고 기뻐해 주셨습니다. 모든 게 교수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준 임용철 교수님과 임연희 선생님, 안과 이기황 교수님, 사회사업팀 박미정 선생님, 그리고 신경외과 간호사분들의 노고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으로 돌아가서도 아주대학교병원의 의술과 진심어린 의료서비스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교수님의 의술에 감탄하였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아내가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경외과 간호사들도 고맙습니다. 아주대학교병원 의료진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가족끼리 밥 따로 마음 따로 ... '가족 식사의 날' 을 갖자

병원에 온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가족이 몸은 한 집에 있지만 마음과 삶은 얼마나 따로따로인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몇 번이나 되는가 하는 횟수다.

“따로 따로 먹는데요. 아빠는 매일 늦고, 엄마는 동생이랑 먹고, 나는 학원 갔다 와서 혼자 먹고.”

“엄마 아빠는 아침 일찍 일하러 가시고, 저녁 먹고 잘 때쯤 오세요. 주말에도 일하러 나가실 때가 많아요.”

“같이 있어도 밥은 잘 안 먹어요. 동생은 게임 한다고 빨리 안 오고, 저는 학원가야 되서 먼저 먹어요. 늦을 때는 집에 오다 삼각김밥으로 때우기도 해요.”

식구(食口)라는 말은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즉, 가족은 함께 밥을 먹는 것이 관계의 기반이 되고, 음식나누기를 통해 유대감을 나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들은 더 이상 가족과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한다. 부모님이 늦게 와서, 학원에 가기 위해, 게임을 멈추지 못해서, 꼭 같이 먹을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요즘은 가족은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다. 대학입시, 무한경쟁의 사회, 소비 중심의 문화 속에서 혼자 밥을 먹는 아이들 마음은 어떨까? 세상에 대해 미래에 대해 아이들 마음에 떠오르는 그림은 어떤 것일까? 열심히 공부해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좋은 차, 이런 것들

을 삶의 목표로 삼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원한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소소한 일에도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최근 늘어나는 학교폭력과 자살, 따돌림 등 아이들이 겪는 문제들은 이 사회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무엇이 행복인지 알려주지 못한 결과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몸소 보여주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가족이 밥을 함께 먹는 것은 단지 가족이 모여, 생존에 필요한 열량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인성을 키우는 것이다. 매 끼니를 같이 먹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가족 간에 소통하고,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 하자는 것이다. 따뜻한 시간을 통해 아이들은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행복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될 것이다.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입증하였다. 2009년 콜럼비아 대학에서 학생들이 받은 성적과 가족들과의 식사횟수 간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 A나 B학점을 받은 학생들은 주당 식사횟수가 5~7번인데 비해 C학점을 받은 학생들은 2번 이하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연구자들은 2011년 가족과 식사를 자주 하지 않는 청소년은 자주 식사하는 청소년에 비해 흡연하는 비율이



4배 높고, 음주비율은 2배, 마리화나 비율은 2.5배 높다고 하였다. 또한 OECD 국가들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가족과 식사하는 횟수와 삶의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이 전체 평균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아이들과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의 식사시간, 밥상머리 교육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러 곳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인천시 교육청은 밥상머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일주일에 두 번 이상 「가족 식사의 날」을 갖는다.
-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식사한다.
- 가족이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먹고, 함께 정리한다.
- TV는 끄고 전화는 나중에 한다.
-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천천히 먹는다.
- 하루 일과를 서로 나눈다.
-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식의 열린 질문을 던진다.
- 부정적인 말은 피하고 공감과 칭찬을 많이 한다.
-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경청한다.
- 행복하고 즐거운 가족식사가 되도록 노력한다.

간혹 밥상머리교육이라고 하면 식탁예절을 비롯해 행동이나 태도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주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가정이 있다. 수저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밥을 먹을 때 순서는 어떤지, 음식을 씹을 때 입 모양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을 가르치다 심지어 아이들 눈에서 눈물을 빼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밥상머리교육의 핵심은 서로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는 것이다. 부모가 먼저 하루의 일을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자신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조 선 미 교수 / 정신건강의학교실

크고 반짝이는 눈동자 '서클렌즈' ... 선택과 관리를 잘하자

요즘 드라마를 보면 여주인공의 눈이 유난히 반짝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검은 동자라고 부르는 각막이 크고 반짝거리는 현상으로, 눈매를 또렷하게 만들어 주고 눈빛이 흐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여주인공이 컬러렌즈의 일종인 '서클렌즈'를 착용한 것이다. 사극 여주인공이 가끔 서클렌즈를 사용하여 네티즌의 비난을 사기도 한다.

이런 분위기는 일반인 특히 청소년 사이에도 퍼져서 서클렌즈를 착용한 여학생을 흔히 볼 수 있다. 유명 렌즈 업체에서는 일일 착용렌즈로 서클렌즈를 만들고 예쁜 얼굴의 유명 여자 연예인을 앞세워 방송광고까지 하며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예뻐 보인다는 이유로 쉽게 사용하는 서클렌즈는 사용에 큰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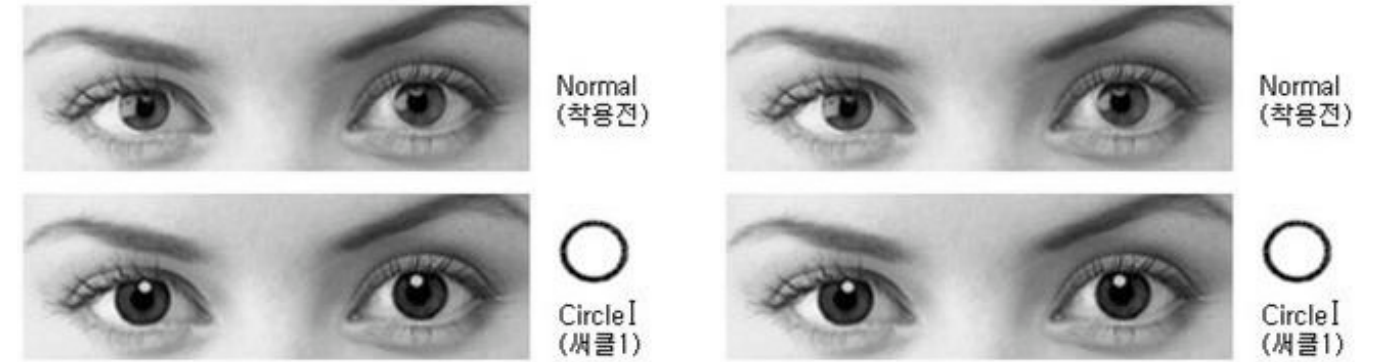
서클렌즈는 실제 각막 보다 큰 직경으로 홍채모양을 그려 넣어서 착용시 동자가 커보이고 반짝이는 느낌을 주는 소프트렌즈다. 최근에는 방송에서 전혀 다른 색을 가진 렌즈를 이용하여 독특한 분위기를 만드는 연예인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홍채를 그려 넣으려면 염료를 렌즈에 착색시키거나 필름을 덧붙이는 과정이 불가피한데, 이런 제조방식은 일반 소프트렌즈에 비해 산소 투과율을 떨어뜨리고 두께가 두꺼워지며 일부 렌즈에서는 염색약에 의한 알러지나 독성 반응까지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서클렌즈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가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것은 선택과 관리다. 우선 자신의 눈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렌즈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 전 식약청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든 컬러 콘택트렌즈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30개 업체의 60개 제품 중 8개 업체 10개 제품에서 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돼 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서클렌즈는 일반 소프트렌즈와는 달리 제조과정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선택에서 더욱 조심해야 한다.

자신의 눈 상태를 확인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다. 서클렌즈도 소프트렌즈의 일종이므로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심하거나 안구건조증이 심한 경우, 각막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서클렌즈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서클렌즈를 꼭 사용하고 싶다면 되도록 산소 투과율이 높고 두께가 얇은 렌즈를 선택하기를 권한다.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리다. 렌즈는 눈과 직접 접촉하여 장시간 유지되므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근시에서 굴절교정 수술이 보편화된 영향도 있지만, 최근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소독하여 장기간 사용하는 소프트렌즈의 사용보다는 단기간 사용하고 교체하는 일회용렌즈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소프트렌즈의 소독과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클렌즈를 잘 관리하는 방법 네 가지를 안내한다.



첫째 착용시간을 되도록 짧게 하라. 서클렌즈의 특성상 일반 소프트렌즈에 비해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많으므로 되도록 짧은 시간만 착용하는 것이 좋다. 통상 4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렌즈를 착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불편하다고 느낄 때에는 바로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소독에 신경써라. 서클렌즈에 침착되는 단백질이나 잔여물질은 그 자체로도 알러지나 독성 반응을 일으켜 눈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보관액이나 보관용기가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감염으로 인한 심각한 각막염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소독에 자신이 없다면 일일 착용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

셋째 사용 이후 조금이라도 불편감이 있다면 착용을 중단하고 안과를 찾아라. 각막염이나 결막염이 생긴 경우에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지 않으려면 빠른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

넷째 신뢰할 수 있는 유통경로로 구매하라.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쓰던 렌즈를 서로 매매하여 사용한 뒤 감염성 각막염으로 심각한 상태를 초래한 경우가 있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렌즈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서클렌즈를 착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안과 의원이나 정식 취급점을 통해 구매해야 한다.

크고 반짝이는 눈은 화장보다도 사람의 인상을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광고처럼 아름다운 눈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서 서클렌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서클렌즈를 사용하고 싶다면 눈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앞서 말한 원칙들을 꼭 지켜주기 바란다. 특히 늘 피로하고 몸이 지쳐 있는 고등학생은 미래를 위해 렌즈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일 것이다.



양 홍 석 교수 / 안과학교실

약이 되는 생활 습관의 기본은 ...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최근 모 케이블 TV에서 방송 중인 엄기준 주연의 「더 바이러스」라는 드라마는 ‘생존율 0% 치명적 변종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특수 감염병 위기대책반의 활약’을 그리고 있다. 주인공은 사건현장을 쫓아다니며 바이러스 감염 경로를 찾아 모종의 음모와 맞닥뜨리게 되는데……. 영화처럼 화려한 화면과 특이한 설정이 흥미있고, 변종 바이러스 유행이라는 소재를 다룬 이 메디컬 스릴러가 감염 전문가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올지도 궁금하다. 미지의 미생물 감염을 소재로 했던 영화 「아웃브레이크」나 「레지던트 이블」을 예전에 무척 재미있게 보았던 기억이 난다.

어떤 병이든 마찬가지로 걸리기 전에 예방이 중요하고 특히나 감염병은 병원균의 침입경로를 알면 예방할 수 있는 병이 대부분이다.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가장 흔한 침입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다. 소화기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면 손에 묻어있다 혹은 음식에 끼어있다 입으로 들어갈 테고, 호흡기 병원균은 공기 중에 있다 들이마시는 숨과 함께 기도로 침입하게 될 테고, 피부에 있기 좋아하는 병원균은 피부에 균열이 생길 틈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의 어떤 경로이든 손 씻기와 기침 에티켓을 기본으로 하는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면 병원균의 침입을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

전염이 좀더 잘 되는 일반 독감 바이러스 수준의 호흡기 바이러스였던 것으로 결론이 났으나, 처음 2009년 신종 플루(H1N1 influenza)의 전세계적 유행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감염에 대한 공포에 떨었고 개인 위생 수칙도 모두 열심히 지켰다. 방송에서도 「수시로 손 씻으라」, 「기침할 때는 얼굴을 돌리고 휴지로 입을 막고 해라」 가르쳤다. 손 소독제나 위생 물 티슈니 가게마다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쌓여있고, 또 팔리기도 많이 팔렸다. 사람들이 신종 플루에 걸리기 싫어 열심히 손 씻고 기침 예절을 지킨 덕일까, A형 간염과 같은 다른 감염병은 오히려 그 해 평소보다 낮게 발생했다. 신종 플루를 막기 위해 지킨 개인 위생 수칙이 자연스럽게 다른 감염병에 대한 예방책도 되어준 것이다.

이 걸리면 100% 죽는다는 드라마 속의 바이러스도 이들 중 하나의 경로로 감염되는 것이 뻔할 터 그 감염을 예방하는 기본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손 잘 씻고 기침 에티켓 지키기! 그럼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 혹은 병원균이 유행한다 해도 이 기본을 항상 습관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흔한 유행성 독감, 장염뿐 아니라 미지의 감염병 역시 대부분 피해가게 될 것이라 자신한다.



● 기침 예절 ●

1.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사람이 없는 쪽으로 몸을 돌린 후 소매로 가리고 한다(손으로 입을 가리면 손이 입에서 배출된 미생물로 심하게 오염된다).
2. 기침 후에는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로 닦아준다.
3. 계속 기침이 나면 마스크를 착용한다. 얼굴 표면에 맞게 쓰고 턱 밑까지 완전히 덮는다.
4. 마스크는 젖지 않게 자주 교환하고 벗을 때에는 마스크 끈을 잡고 버린다.

● 손 씻기 ●

1. 이런 상황 이후엔 손을 씻는다. 자주 씻을수록 이득이다. 대소변을 본 후, 외출 다녀온 후, 애완동물을 만진 후, 음식물 먹기 전, 요리하기 전, 돈을 만진 후, 상처를 만진 후, 기저귀를 간 후, 콘택트렌즈를 끼거나 뺄 때, 책이나 컴퓨터 만진 후 등등 불결한 것과 접촉한 상황
2. 올바른 손 씻는 방법
흐르는 물에 충분한 비누를 묻혀서 손바닥, 손등, 손가락 깎지, 손톱까지 구석구석 깨끗하게 씻는다.



김 현 경 교수 / 감염내과학교실

탈모를 예방하고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게 하는 모발 관리

201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탈모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24.8%가 증가하였으며, 인구 10만 명당 진료환자도 2005년 307명에서 2009년 374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에서는 남성 진료환자가 많은 반면, 40대 이상은 여성 진료환자가 더 많았다. 특히 전체 진료환자 중 20~30대 진료환자의 비율이 높았는데 20~30대가 전체의 48.4%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탈모는 국민의 관심 질환이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탈모를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게 해 주는 올바른 모발 관리법을 알아 보도록 하자.

대부분의 사람이 머리를 아침에 감는다고 한다. 하지만 머리는 아침보다는 저녁에 감는 것이 좋다. 저녁에 머리를 감게 되면 하루 종일 두피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두피가 깨끗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나, 아침에 머리를 감으면 잠을 자는 내내 먼지가 두피에 쌓이고 모공을 막아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머리를 얼마나 자주 감느냐는 두피의 기름기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두피에 기름기가 많으면 매일 1번 정도 감아야 한다. 만약 피어나 염색을 한 경우 모발이 건조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머리 감는 횟수를 줄여야 한다. 또 나이가 들면 두피의 기름기가 덜해지므로 샴푸를 자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모발에 딱지 같은 것이 보이면 비듬이나 다른 두피 질환이 생길 수 있으므로 샴푸를 충분히 해야 한다.

머리를 감을 때에는 모발 보다는 두피에 집중하여 감아야 한다. 두



피에는 샴푸를 하지 않고 모발만 감게 되면 오히려 모발이 손질하기 어렵게 된다. 샴푸 후에는 린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린스를 사용함으로써 손상된 모발에 광택을 주고 정전기 발생이 감소되고 모발이 튼튼해 지며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 린스는 모발의 끝에 주로 바르는 것이 좋다. 물론 본인의 모발 특성에 맞는 샴푸와 린스를 고르는 것이 필요하다. 염색, 파마 또는 손상 여부에 따라 이에 적합한 제품을 고르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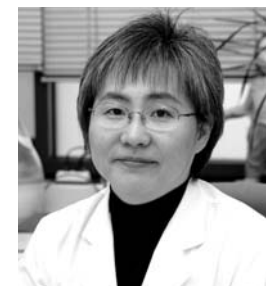
머리를 수건으로 너무 세게 말리면 탈모가 생길 수 있다. 젖은 머리는 마른 머리보다 탄성이 더 생기고 더 잘 부러질 수 있다. 그러므로 머리를 비벼서 말리는 것 보다는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서 물기가 배이게 한 다음 머리가 자연히 마르도록 하는 것이 좋다.

곱슬머리가 아닌 경우 모발은 젖은 상태에서 빗질을 하는 것보다 마른 후에 하는 것이 좋다. 머리가 젖었을 때 브러시를 쓰거나 빗질을 하면 머리 끝이 꺾어져서 부러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머리 빗질을 과도하게 하면 모발 끝이 손상되어 갈라 질 수 있으니 머리 빗질은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좋다.

헤어드라이어에서 나오는 고열은 모발 안에 있는 수분을 가열시켜 머리가 잘 부스러지게 한다. 머리를 일부분 자연 건조한 후에 머리의 스타일을 잡아야 모발 손상이 덜하다. 뿐만 아니라 헤어드라이어 사용 횟수를 줄이는 것도 모발의 손상을 줄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만약 머리에 불륨을 주기 위해 고대기를 사용한다면 1-2초 이상 머리에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열이 과하면 모발은 손상될 수 있다.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는 헤어스타일 용품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제품이 머리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머리를 빗거나 하면 머리가 쉽게 부러질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가 심각하게 빠질 수도 있다. 파마, 염색도 되도록이면 덜 하는 것이 좋다. 머리를 너무 단단하게 따거나 뒤로 당겨서 묶는다면 지 모발 연장을 하는 것도 모발의 손상을 초래한다.

과도한 태양 광선도 모발을 약하고 건조하게 하며 거칠게 하여 부스러지게 한다. 특히 머리를 탈색했다든지 하여 원래 색깔보다 연해지면 더 쉽게 손상을 받게 된다. 이런 경우 씻어내지 않는 헤어 컨디셔너(conditioner)를 사용하거나 챙이 넓은 모자를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은소 교수 / 피부과학교실

관절염에 좋은 수영 ... 잘못하면 관절에 무리 준다

수영은 많은 사람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즐기는 운동이다. 특히 관절염이 있는 사람에서 매우 좋은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관절에 도리어 무리를 줄 수 있으니, 주의사항을 알고서 수영을 즐기는 것이 좋겠다.

접영과 자유형이 어깨 통증을 잘 일으키는데, 자유형에서 뒤로 뺀 손을 가져와 다시 물을 잠을 때(손의 입수 동작 시),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잘못된 손의 입수 자세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코어 근력이 약해 몸이 흔들려서 나타났다면 반드시 수영 전에 물 밖에서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을 해야 한다.

배영과 마찬가지로 자유형은 양팔을 번갈아 사용하는데 코어 근력이 약하면 몸통의 롤링(Rolling)이 부족해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어깨 힘줄에 전달되면서 어깨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 어깨 통증의 예방 목적만이 아니라, 코어근육 강화로 몸이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줄여 물 저항을 감소시킴으로써 수영 속도를 증가시키는 효과도 가져온다. 오랜 시간 수영을 하다 보면 근육, 특히 전거근(serattus anterior)에 피로가 누적되면서 이차적으로 어깨 힘줄이 압박되어 어깨 통증을 유발하게 되므로 보강 훈련으로써 전거근의 지구력을 키우는 운동을 해야 한다.



소위 개구리 헤엄이라고 하는 영법인 평영의 경우, 최대한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발을 외회전(바깥으로 돌리는)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력을 얻게 된다. 따라서 이 과정이 심하게 반복되면, 무릎 관절 안쪽에 위치한 「무릎 내측인대」에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이것이 내측 인대 손상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있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릎 내측 부위 스트레칭 운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다음에 평영을 하도록 하고, 다른 영법과 섞어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 또 평영은 소위 라운드 숄더(round shoulder)라 일컫는 「둥근 어깨」, 즉 어깨가 앞으로 구부정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기 때문에, 이를 교정하기 위해 가슴 앞쪽 근육, 특히 소흉근을 집중적으로 스트레칭 해주는 것이 통증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

가장 멋있는, 혹은 역동적인 영법이라고 알려진 접영(버터플라이)은 에너지 소모가 매우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몸통이 다리와 부드러운 흐름을 유지하면서 힘이 전달되어야 하나 접영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엔 대부분 순전히 허리만의 힘으로 상체를 수면 위로 올리게 되면서 요통을 호소할 수 있다. 따라서 접영을 하기 전에 척추 관절 스트레칭을 먼저 실시하고, 부력판을 이용해서 손을 돌리는 동작을 쉬어주면서, 몸통이 부드러운 웨이브를 그릴 수 있도록 연습을 먼저 해보도록 한다. 이 경우에도 요통이 느껴진다면 당분간 접영은 하지 않도록 한다.

자유형의 경우 등근육이 너무 약한 사람은 몸을 일자로 유지하지 못하고 엉덩이와 다리가 아래로 가라앉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숨을 쉬기 위해 목을 과하게 신전시켜서 호흡을 반복한 경우 목이나 허리통증을 호소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이 있었던 분은, 일상 생활에서 등근육을 강화시키는 연습을 자주 해주는 것이 좋겠다. 또 자유형을 하면서 시신을 전방에 두기보다는 아래쪽, 즉 수영장 바닥을 바라보아야 척추와 머리가 일직선을 이루면서 목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적어진다는 사실도 알아두자. 시신을 아래에 주면서, 머리와 척추를 일렬로 유지하는 것은 평영 및 접영 시에도 마찬가지로 염두해 두어야 한다.

배영에서 목의 앞쪽 근육이 영법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목 통증을 호소할 경우에는 수영 거리를 단계적으로 올리면 좋다.



이 두 형 교수 / 정형외과학교실

부츠를 사랑하는 멋쟁이 ... 무좀(tinea pedis)

여름철 흔히 문제가 되는 무좀은 겨울철에 증상이 완화되기 때문에 대부분 치료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여름에 습하고 무더운 환경에서 번식하며 기승을 부리던 무좀균이 건조한 겨울이 되면 잘 번식할 수 없어서 피부 속에 숨어 지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매서운 한파와 폭설이 지속되는 요즘에도 무좀으로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심심찮게 만나 볼 수 있다. 이유는 부츠에 있다. 장화나 부츠를 신어서 습하고 밀폐된 따뜻한 환경이 만들어 주면 무좀의 원인균인 피부사상균이 번식하면서 가렵고 각질이 일고 물집이 잡히는 여러 형태의 발 무좀이 발생한다.

무좀균은 목욕탕이나 수영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집단 생활을 하는 군대 또는 가정에서 환자에게 떨어져 나온 인설을 통해 전염된다. 피부표면에 붙어 집락화(colonization)된 피부사상균은 아직 감염된 상태는 아니나 걸을 때 발생하는 마찰이나 작은 상처로 인해 피부 장벽에 손상을 입었을 때 표피층으로 침투하며 감염이 되고 증상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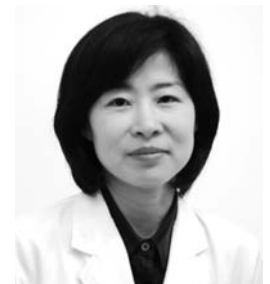
발 무좀은 세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발가락 사이가 가려우면서 껍질이 벗어지고 갈라지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발바닥 전체 각질이 두꺼워 지는 형, 물집이 생기는 형이 있다. 두발 모두와 한 쪽 손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다. 발무좀을 오랫동안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발톱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발톱무좀은 발톱의 과각화를 보이기도 하며 황색 혹은 흰색을 띄며 광택을 잃기도 하며 더 진행 시에는 발톱이 탈락되거나 부스러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발이 가렵고 각질이 일어나면 모두 무좀이라고 알고 있는데 발에 생긴다고 해서 모두 무좀은 아니다. 한포진, 접촉성 피부염 등의 습진과 수장족저농포증 등 다른 피부질환과의 감별이 꼭 필요하다. 피부과 의사의 경우도 임상양상만으로는 진단이 어려운 경우 「진균 도말 검사」나 「진균 배양 검사」 등 보조적인 진단방법을 동원하여 확진을 하는 만큼 무좀이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전문의의 진찰을 받도록 하자. 수산화칼륨(KOH) 직접 도말 검사는 외래에서 시행하는 간단한 검사로 피부의 각질을 긁어서 슬라이드 위에 채취하여 10~30%의 수산화칼륨(KOH) 용액으로 각질세포를 용해한 후 현미경으로 관찰 시에 균사 및 포자를 관찰할 수 있다.

무좀은 나올 수 있다. 무좀이 나올 수 있다면 왜 자꾸 재발하는 것일까? 무좀연고를 며칠 바르면 대부분 증상이 없어진다. 이로 인해 많은 환자가 연고를 며칠 바르고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증상이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무좀균이 모두 퇴치된 것은 아니다. 곧 시간이 지나면 무좀균이 다시 활동하게 돼서 재발하게 된다. 따라서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무좀연고를 4~6주 정도 계속 바르는 것이 좋다. 또 무좀이 발톱까지 침범한 경우는 먹는 약을 복용해서 발톱무좀까지 치료해야 한다. 발톱무좀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발 무좀을 치료해도 발톱에서 곰팡이가 떨어져 나와 발 무좀이 다시 생기기 때문이다.

무좀이 다 나았다가 다시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무좀이 잘 걸리는 사람들 즉, 발에 땀이 많거나 면역력이 저하된 당뇨병자들은 무좀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무좀균은 열과 습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발을 닦은 후 철저히 말려야 하며 신발은 통풍이 잘되는 것을 택한다.



강희영 교수 / 피부과학교실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고막천공 수술을 위해 고막을 말려야 하는데...



Q

고막천공으로 수술을 앞두고 치료만 두 달째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수술할 수 없으니 고막 입구를 바삭 말려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A

중이염 수술은 깨끗한 상태에서 수술할수록 그 범위가 적어지고, 예후도 좋습니다. 특히 고막천공으로 인한 고막상형술은 염증 여부가 성공과 실패를 결정지을 수 있을기 때문에 가능한 깨끗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막이 젖어 있다는 것은 겉에서 물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고막이나 고막 안쪽의 중이공간에 염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고막과 중이강이 마른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약을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렸다가 수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정 연 훈 주임교수 / 이비인후과학교실 〉

이비인후과 외래 031- 219- 5747

AMC NEWS

이영주 교수, 명예로운 정년퇴임식 열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은 지난 2월 14일 수원 호텔 캐슬에서 마취통증의학교실 이영주 교수의 정년퇴임 축하행사를 가졌다.

이날 퇴임식에는 소의영 의료원장, 임기영 의과대학장을 비롯하여 오랜 시간 함께 일해 온 각과 주임교수 및 동료, 후배 교수들과 외빈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이영주 교수의 정년퇴임을 축하했다.

축사에서 소의영 의료원장은 『이영주 교수는 집중치료실장으로서, 중환자 치료의 기틀을 마련하고 뇌사 환자 이송을 위해 밤낮으로 최선을 다한 분이기에 오늘의 자리가 더 아쉽고, 더 기쁘다』고 말하며, 『평생 환자를 위해 수고하고 축복된 정년퇴임을 맞이한 이영주 교수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고 했다.

이영주 교수는 인사말에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내외빈께 감사드리며, 아주대학교의료원에서 정년퇴임을 맞이하여 기쁘고 모교 병원으로 옮겨서도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주 교수는 아주대학교병원 개원 이후 줄곧 집중치료실장을 맡아 병원 내 잠재 뇌사가능 환자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장기기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일은 물론, 외부 병원의 잠재 뇌사자 발생에 적극 대처해 왔다. 이 교수는 뇌사자가 있는 곳이면 365일 24시간 어디든 출동하는 뇌사담당 주치의로 유명하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07년에는 장기기증 유공자 표창을 받기도 했다. 또 2010년에 아주대학교병원이 장기기증 유공단체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일본 동해대부속병원 진료부장 일행 방문

일본 동해대부속병원 Yasuo Suzuki 진료부장을 비롯한 8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지난 2월 14일 아주대학교병원을 방문했다.

간호부, 의공과, 약제과, 재무과, 사회사업과, 법무과 등 각 부서별 연수 실무진으로 구성된 이번 방문단은 병원 곳곳을 둘러보고, 연수 관련 각 부서를 방문하며 직원 연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주대학교병원은 일본 동해대부속병원과 △의료종사자의 교육 및 지원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진료 및 운영에 관한 협력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2012년까지 간호사, 진료지원 및 행정 직원 등 총 43 명의 직원이 연수를 받았다.



**산부인과학교실 장석준 교수,
「송재상」 수상**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장석준 교수가 지난 2월 28일 원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2013학년도 1학기 개강 교수 세미나에서 아주연구상 중 의학계열에 주어진 송재상을 수상했다.

아주연구상은 각 계열별로 최근 1년간 연구실적이 계열별 최근 3년간의 논문 실적 평균을 최소 3배 이상 상회하는 교수로서 최상위자 중에서 심사하여 선정하고 있다.

장석준 교수는 지난 1년간 SCI 및 SCIE 등재 저널에 주저자(제1저자 및 교신저자)로 9편, 공동저자로 1편, 국내저널에 2편 등 총 12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최근 8년간 60편의 논문(SCI 35편, 국내 25편)을 발표한 바 있다.

**김진홍 교수,
한국스텐트연구학회 초대 학회장 선출**



아주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김진홍 교수가 지난 2월 15일 서울 삼성동 베어홀에서 열린 한국스텐트연구학회에서 초대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행사에 학회소속 임상 전문의들과 학계, 산업계 연구 인력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학회 발족을 축하하며 국내외 스텐트 산업의 연구와

임상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학회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산업계와 학계, 임상사의들의 협업을 한층 강화, 스텐트의 국산화 및 연구개발에 앞장설 계획이다.

초대 학회장으로 선출된 김진홍 교수는 「이번 행사는 스텐트에 관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국내 산학연과 병원의 임상사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스텐트의 국산화 및 수출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회가 소통의 중심역할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스텐트는 고령화와 관상동맥, 뇌동맥류 등의 질환으로 인해 혈관, 소화기가 좁아진 문제를 해결하는 의료기이다.

제20회 히포크라테스 선서식 개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 2월 22일 별관 대강당에서 「제20회 히포크라테스 선서식」을 열었다.

이날 의과대학 졸업생 총 42명은 조인성 경기도 의사회장, 소의영 의원원장, 임기영 의과대학장, 유희석 병원장을 비롯해 6년 동안 지도한 스승, 가족,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통해 의료인으로서의 사랑과 봉사의 삶을 가질 것을 다짐했다.

우수 졸업생 시상에서는 감지은 학생이 총장상을, 유슬기, 조기영 학생이 의료원장상을, 이예진, 정연성 학생이 의과대학장상과 의학전문대학원장상을, 김고운, 백유림 학생이 병원장상을 수상하는 등 총 12명의 졸업생이 수상했다. 소의영 의원원장은 축사를 통해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의사로서의 삶을 시작한 여러분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말하며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사명감과 사랑으로 환자를 보살피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2012 ACME 통합교육 종합평가 우수교수 선정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실은 지난 1월 29일 2012학년도 ACME 통합교육 종합평가 우수교수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2012학년도 ACME 통합교육 종합평가 우수교수에는 생화학교실 이재호 교수, 신경과학교실 문소영 교수, 중앙혈액내과학교실 박준성 교수, 호흡기내과학교실 박광주 교수, 생화학교실 윤계순 교수 등 5명이 선정됐다.

통합교육과정 우수교수 시상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시행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강의평가와 책임교수의 평가, 의학교육실 평가 점수를 합산하고, 강의시수를 고려하여 우수교수를 선정하고 있다.

2013학년도 대학원간호학과 워크숍 실시



아주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는 지난 2월18일 베어마운 연회장에서 2013학년도 신입생 및 재학생, 수료·졸업생, 교수 등 약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학년도 대학원간호학과Workshop」을 실시하였다.

이날 2011학기 및 2012학기 학위수여식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2명의 박사졸업생에게 학위취득 축하패 수여식과 제9회 전문간호사자격시험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가정(2)/노인(7)/중환자전문간호사(2) 총 11명에 대한 자격증 수여식을 가졌고, 각 전공별로 교수와 대학원생간의 교육과정 지도 및 Q&A가 진행되었다.

이날 박지원 간호대학장은 개회사에서 「신입생들의 입학과 박사학위 취득 및 전문간호사자격증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 자리가 전공별 교수와 동기, 선·후배 간 유대를 강화하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수전공의 표창장 수여

아주대학교병원은 지난 2월 26일 별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수련기간 동안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우수 전공의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올해 베스트 레지던트에는 소아청소년과 광재령 전공의가, 베스트 인턴에는 이세련 인턴이 선정됐으며, 공로상에는 내과 김영집 전공의와 정재오 인턴이 선정되어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 소아청소년과 광재령 전공의



▲ 이세련 인턴



▲ 내과 이영집 전공의



▲ 정재오 인턴

■ 도서기증안내

치과학교실에서 「치의학용어집」 외 도서 5권을 의학문헌정보센터에 기증했다.

진료협력의사 초청 연찬회 개최



아주대학교병원 진료협력센터는 지난 2월20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진료협력의사 초청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에는 아주대학교병원 유희석 병원장, 탁승제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제1진료부원장, 오영택 제2진료부원장, 김윤기 행정부원장, 이득주 건강증진센터 소장, 이관우 진료협력센터장을 비롯하여 50여 명의 아주대학교병원 교수와 협력의사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아주대학교병원은 지역 병, 의원들 중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적극 협력해 오고 있는 정영진 강남 병원장, 삼성여성병원 이동협, 김종우 안과원장, 송영민 비뇨기과원장, 권미선 권내과원장, 추무진 메디서울이비인후과 원장, 이상오 화성중앙병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행사에서 유희석 병원장은 「웰빙센터 건립 및 지역암센터, 심혈관센터 개소 등으로 제2도약의 해가 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경기 남부지역의 중심 병원으로 서로 상생하는 지역 거점병원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12회 아주난청재활교실 개최 안내

아주난청센터는 3월 8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병원 지하1층 아주홀에서 「제12회 아주난청재활교실」을 개최한다.

이번 아주난청재활교실의 주제는 「인공와우의 최신 경향 - 잔존청력보존술」로, 잔존청력보존술 중심의 인공와우 수술과 양측 인공와우, 성인난청에 대한 적용, 수술 후 재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아주난청센터 소개 및 시술현황 △인공와우 수술의 현재와 미래 (잔존청력 보존 수술법을 중심으로) △양측 인공와우의 이해와 실제 △성인 난청과 인공와우 △인공와우 수술 후 재활 △환자 사례보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난청 환자과 가족, 특수학교 및 재활기관 관계자,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치료사 및 청각사 등을 비롯하여 난청과 인공와우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등록비는 없다. 다만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가 희망자는 반드시 아주난청센터에 전화로 참가등록을 해야 한다.

(참가등록 및 문의 ☎ 031-219-4319, 4320)



내분비센터 심포지엄 개최 안내

아주대학교병원 내분비센터에서는 오는 4월 19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별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내분비내과내과교실 초대 주임교수인 고태현만 교수의 10주기를 기념한 자리로 갑상선과 당뇨병, 골다공증을 주제로 각 분야 치료의 최신지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Update of Thyroid cancer(13:30~15:00) △Update of Diabetes treatment(15:00~16:30) △ Update of Osteoporosis treatment(16:45~18:15) 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본 심포지엄의 등록비는 무료이며, 관심이 있는 분이면 누구나 사전 등록 후 들을 수 있다.

사전 등록 및 문의처: 내분비내과내과 이정은 ☎ 031-219-5125 (dewiness2@naver.com)

의학문헌정보센터 Aju Open Repositiry, 우수 구축 사례로 선정

아주대학교 의학문헌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Aju Open Repositiry가 우수 구축사례로 선정되어, 지난 2월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충남 보령 무창포 비체펠리스에서 진행된 기관리포지터리 구축 관련 워크숍에 초청되어 우수사례 발표를 했다.

의학문헌정보센터는 의학문헌정보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와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함께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Open Access Korea-Institutional Repository에 2010년 구축 기관으로 선정되어 Aju Open Repositiry를 운영하고 있다.

가정의학과 의료진, 지역주민 대상 문화센터 불학기 특강에 연자로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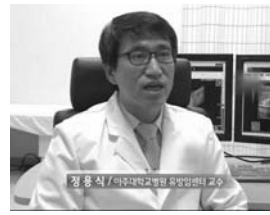
아주대학교병원 의료진들이 수원 인근의 백화점 문화센터 불학기 특강에 강연진으로 참여한다. 잘못된 건강상식 고치기, 나에게 맞는 건강관리와 건강검진법, 피로 탈출법, 효과적인 예방접종, 비타민 복용, 유방암에 대한 상식 등을 경기도 지역주민들에게 전할 예정이다.

날짜	시간	장소	강의 주제	강연자
3. 6(수)	오후 2시20분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	나에게 꼭 맞는 건강검진 선택법	가정의학과 이득주 교수
3.11(월)	오후 2시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잘못 알고 있는 건강상식	가정의학과 이득주 교수
3.13(수)	오후 2시20분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	피로, 피곤한 인생 탈출하기	가정의학과 김광민 교수
3.20(수)	오후 2시20분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	효과적인 예방접종	가정의학과 박설훈 교수
3.27(수)	오후 2시20분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	비타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가정의학과 김범택 교수
4. 8(월)	오후 2시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나에게 맞는 건강관리 및 건강 검진법	가정의학과 이득주 교수

방송 · 신문에 보도된 아주대의료진



-방송: OBS 독특한 연예뉴스
-일시: 2013. 1. 25(금)
-출연: 신경동증클리닉 양중윤 교수
-내용: 스타의 희귀병 - 신동욱의 CR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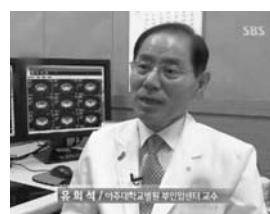
-방송: SBS 생활경제 「이찬휘 기자의 헬스톡톡」
-일시: 2013. 1.29(화)
-출연: 유방암센터 정용식 교수
-내용: 유전성 유방암, 정기검진이 최선



-방송: SBS 생활경제 「이찬휘 기자의 헬스톡톡」
-일시: 2013. 1.29(화)
-출연: 유방암센터 김구상 교수
-내용: 유전성 유방암, 정기검진이 최선



-방송: TV조선 유연체의 뉴스의 「눈, 사람의 눈 맞추다」
-일시: 2013. 2. 4(월)
-출연: 외상외과 이국장 교수
-내용: 「영웅을 살린 영웅」 이국중 교수



-방송: SBS 생활경제 「이찬휘 기자의 헬스톡톡」
-일시: 2013. 2. 8(금)
-출연: 부인암센터 유희석 교수(병원장)
-내용: 소리 없이 다가오는 침묵의 살인자 「난소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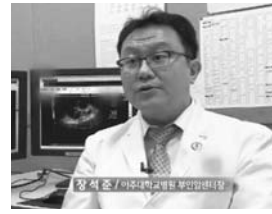
<119 앰블런스 환자 88%가 타박상 등 경증, 걸어서 집에 가>
-조선일보 | 2013. 1. 29(화)
-응급의학과 김기운 교수



<종합비타민 챙겨 먹었더니 암 발생률 뚝>
-중앙일보 | 2013. 2. 4(월)
-내분비내과내과 정운석 교수



<골다공증약, 5mg짜리면 효과 충분>
-조선일보 | 2013. 2. 6(수)
-내분비내과내과 정운석 교수



-방송: SBS 생활경제 「이찬휘 기자의 헬스톡톡」
-일시: 2013. 2. 8(금)
-출연: 부인암센터 장석준 교수
-내용: 소리 없이 다가오는 침묵의 살인자 「난소암」



-방송: SBS라디오 건강칼럼
-일시: 2013. 2.11(월) ~ 2.17(일)
-출연: 치과 홍성태 교수
-내용: 치과 질환



-방송: SBS 모닝와이드
-일시: 2013. 2.18(월)
-출연: 신경과 문소영 교수
-내용: 치매의 원인과 예방법



-방송: KBS 위기탈출 넘버원
-일시: 2013. 2.18(월)
-출연: 응급의학과 최상청 교수
-내용: 위험한 우리집,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면역력 약한 아이들 '심세한 치료' 필요>
-경인일보 | 2013. 2. 1(금)
-소아청소년과 박문성 교수



<윤승현 · 이두형교수의 스포츠의학클리닉 ④ 배구 下>
-경인일보 | 2013. 2. 8(금)
-재활의학교실 윤승현 교수, 정형외과학교실 이두형 교수



<의술인물 '서클렌즈' 관리, 네 가지는 지키자>
-경향신문 | 2013. 2.15(금)
-안과 양홍석 교수



<가난할수록 더 많이 아픈 노인들>
-매일경제 | 2013. 2.21(목)
-예방의학교실 이윤환 교수

아주 사랑나눔 동참에 감사드립니다

의료원 발전기금



● 이영주 교수, 3000만 원 기부

지난 2월28일로 영예로운 정년퇴임을 맞이한 마취통증의학교실 이영주 교수가 의료원발전기금으로 3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교수는 1994년 병원 개원과 함께 부임하여 병원 중환자치료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뇌사자 주치의를 담당하여 뇌사환자이송, 뇌사자 장기이식 등을 위해 365일 언제나 최선을 다한 분으로 20년간 고락을 함께하며 몸담았던 일터를 떠나며 뜻깊은 기부를 한 것이다. 이교수는 이번 기부금으로 병원발전에 1000만 원, 마취과발전에 1000만 원 그리고 중환자실소속 간호사 연수교육 지원 등에 1000만 원을 각각 사용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

이교수는 이번 기부 외에도 2002년, 2008년에 의료원발전기금으로 각각 1000만 원씩을 기부한 바 있으며, 아주 의대 학생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기금과 불우환자를 돕는 병원 사회사업기금에도 매월 본인의 급여에서 상당액을 공제하여 기부해왔다. 아주대학교의료원에서 많은 것을 베풀고 떠나는 이 교수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린다.

● 2012학년도 기부금 모금 현황

(교직원)
가진희, 간호부, 강계영, 강문, 강미경, 강미선, 강미순, 강성은, 강엽, 강영숙, 강은경, 강은미, 강인애, 강지성, 강창인, 강창진, 강채리, 강현삼, 강희영, 건진옥, 경미숙, 고객상담실, 고미화, 고승희, 고연주, 고 은, 고은경, 고은숙, 고은정, 고정미, 고정민, 고정희, 고재상, 고준원, 공영금, 공태현, 곡규성, 곡우실, 곡인혜, 곡종서, 구유미, 구은주, 구희숙, 국경훈, 권경수, 권나현, 권명호, 권명희, 권미정, 권세희, 권수경, 권영숙(4층서), 권영숙(병리), 권오성, 권오일, 권용서, 권우식, 권정원, 권종희, 권준연, 권현순, 권혜언, 기은정, 김경수, 김화영, 김각현, 김경덕, 김경미(의무 기록), 김경미(지역암), 김경미(3CU), 김경미(11서), 김경민, 김경순, 김경옥, 김경임, 김경자, 김경진, 김경혜, 김경희, 김광민, 김기남, 김기운, 김길봉, 김나경, 김낙원, 김남훈, 김다정, 김대성, 김대연, 김대중, 김덕하, 김도형, 김동민, 김동성, 김명희, 김무수, 김미라, 김미란, 김미선(3CU), 김미선(응급CU), 김미아, 김미영, 김미옥, 김미정(13서), 김미정(5CU), 김미향, 김미화, 김민경(어린이집), 김민경(11동), 김민정, 김민혜, 김민화, 김범택, 김병근, 김보경, 김보형, 김복원, 김복연, 김봉원, 김분아, 김상숙, 김상은, 김상현, 김서현, 김선경, 김진순, 김진영, 김진숙, 김진일, 김선정(원무), 김선정(보철), 김선혜, 김선희, 김성구, 김성수(시설), 김성수(세포사멸), 김성중, 김세일, 김세중, 김소연(간진), 김소연(약제), 김소정, 김수경, 김수연, 김수정(예방), 김수정(지역암), 김순량, 김순선, 김승열, 김양수, 김연기, 김연성, 김연수, 김연정(의무), 김연정(원무), 김연주, 김연지, 김연호, 김연희(사회사업), 김연희(분만), 김영린, 김영민, 김영배, 김영선(진단검사), 김영선(11서), 김영선(혈액투석), 김영선(7동), 김영숙(영양), 김영숙(10동), 김영연, 김영옥, 김영주(영양), 김영수,

김영주(외래간호), 김영화, 김영희, 김옥경, 김옥섭, 김옥주, 김원기, 김윤순, 김옥환, 김원배, 김유경, 김유아, 김유정, 김유진, 김유찬, 김윤경, 김윤기, 김윤정, 김윤주, 김윤지, 김은선, 김은수, 김은애, 김은영, 김은정, 김은주(응급CU), 김은주(진단검사), 김은화, 김은희, 김의경, 김의섭, 김의재, 김인순, 김인애, 김정희, 김재관, 김재근, 김재호, 김점분, 김정미(외래간호), 김정미(수술), 김정민, 김정수, 김정순, 김정호, 김정화, 김종길, 김종엽, 김지라, 김주연(의무), 김주옥, 김주은, 김주철, 김지숙, 김지양, 김지연, 김지영, 김지현, 김지혜, 김진선, 김진수, 김진숙(응급), 김진숙(7동), 김진식, 김진아, 김진연, 김진태, 김진홍, 김찬숙, 김철호, 김춘계, 김춘실, 김춘자, 김태순, 김필순, 김하영, 김학남, 김행수, 김현, 김현아, 김현경(12서), 김현경(신생아), 김현명, 김현미, 김현순, 김현실, 김현정(분만), 김현정(9서), 김현정(7동), 김현주(11동), 김현주(소화기검사), 김현준, 김형선, 김혜련, 김혜림, 김혜숙(3CU), 김혜숙(13서), 김혜용, 김혜정(의무), 김혜정(CCU), 김혜진(연구지원), 김혜진(내분비), 김희순, 김활용, 김효정, 김효진(3CU), 김효진(7동), 김홍수, 김희연, 김희정(구애), 김희정(13서), 김희정(수술), 김희훈, 나성미, 나 연, 나은우, 남경현, 남동호, 남미나, 남수민, 남애리나, 노경식, 노미숙, 노선경, 노선진, 노영덕, 노예술, 노오규, 노재성, 노현옥, 도상은, 두고은, 라인옥, 라희정, 류순자, 류은형, 류정숙, 류현정, 마인숙, 마홍임, 명형남, 문경미, 문경진, 문난희, 문봉기, 문소영, 문지영, 문현호, 문형아, 민경숙, 민병현, 민상기, 민영기, 민지영, 민혜윤, 박기미, 박경숙, 박경주, 박계주, 박관식, 박광주, 박교은, 박규민, 박규현, 박기현, 박다정, 박동일, 박동호, 박래용, 박명분, 박명자, 박명철, 박명희, 박모수, 박문성, 박미미, 박미성, 박미정, 박병남, 박보연, 박심례, 박상면, 박상미,

박상신, 박상현, 박상희, 박설훈, 박 선, 박선영, 박선정, 박선혜, 박성용, 박성희, 박소라, 박수경(소화기검사), 박수경(진단검사), 박수경(영양), 박수영, 박수용, 박수정, 박순엽, 박순영, 박승현, 박양숙, 박연옥, 박영일, 박영희, 박윤숙, 박은영(진단), 박은영(대장암센터), 박은영(연구지원), 박인규, 박인덕, 박인숙(12서), 박인숙(외래간호), 박인휘, 박일중, 박재범, 박정연, 박정옥, 박정웅, 박정은, 박정태, 박중선, 박종원, 박주현, 박준성, 박지선, 박지영, 박지원, 박진명, 박진희, 박찬분, 박철승, 박태준, 박하늘, 박해심, 박현이, 박현선, 박현주(응급CU), 박현주(13동), 박형란, 박혜란, 박혜영(4서), 박혜영(11동), 박혜진, 박효선, 박희숙, 방은숙, 배기수, 배명환, 배성복, 배원규, 배윤진, 배재익, 배재중, 배정수, 배홍순, 백금옥, 백다영, 백분고, 백설경, 백소영, 백승진, 백은철, 백원진, 백은정, 백은주, 백중환, 백효실, 변경선, 변유정, 복미숙, 복찬홍, 서기춘, 서명선, 서미숙, 서미혜, 서소라, 서숙진, 서윤주, 서은정, 서창희, 서천호, 서혜영, 서형범, 서홍일, 선주성, 선순희, 성영수, 성인하, 성진옥, 성화선, 소의영, 소지은, 소진식, 소현숙, 손경진, 손동일, 손미선, 손성환, 손세화, 손순이, 손은미, 손은희, 손주선, 손현숙, 송미숙, 송서례, 송선진, 송수근, 송승희, 송옥자, 송은주, 송인선, 송종래, 송주은, 송지연, 송지현, 송지훈, 송충숙, 송혜정, 신미영(지역암센터), 신미영(수술), 신미정, 신민선, 신승수, 신승준, 신유섭, 신윤미, 신정미, 신중수, 신준환, 신지숙, 신한술기, 신현경, 신현정, 신호준, 심명희, 심수경, 심주민, 안동녀, 안미선, 안선현, 안성란, 안성숙, 안소연, 안수민, 안연희, 안영실, 안영환, 안은미, 안재홍, 안재희, 안하연, 안현수, 안현훈, 안형옥, 안희정, 양미선, 양보술, 양은정, 양정인, 양혜진, 양홍서, 엄경태, 엄선미, 엄수자, 엄애현, 엄유미, 엄혜영, 여인성, 연구봉, 예복희, 예영민, 오명순, 오민영, 오수연, 오연주, 오영아,

● (주)아비스간병인협회 양미숙 대표, 1000만 원 기부

서울소재 다수의 대학병원과 아주대학교병원 등에서 간병사업을 하고 있는 아비스간병인협회 양미숙 대표가 지난 2월20일 의료원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양대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에게 무료간병을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사업에도 항상 관심을 갖고 있으며, 아주대학교병원에서도 본인이 간병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의미에서 병원에 기부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2012학년도 기부금 모금 현황(2012.3.1~2013.2.28)

구분	기금명칭	금 액
일반목적 기부금	의료원발전기금	7억 2424만원
특정목적 기부금	의대발전기금	5650만원
	의대교수장학기금	8019만원
	간호대건축기금	4842만원
	간호대발전기금	1568만원
	임상치의학대학원발전기금	2000만원
병원 사회사업 기부금	아주사회사업기금	4억 9735만원
총 계		14억 2648만원

오영택, 오은경, 오은영, 오은정, 오은주, 오정금, 오정기, 오정숙, 오진숙, 오충희, 오혜란, 왕희정, 우정희, 우현구, 우혜진, 우효정, 원수명, 원영자, 원예연, 원재환, 원혜림, 유경화, 유기원, 유나현, 유동문, 유문숙, 유미애, 유민형, 유병무, 유선자, 유세환, 유순화, 유승철, 유여성, 유영숙, 유은하, 유정화, 유지원, 유지혜, 유현수, 유형수, 유혜라, 유희석, 육경숙, 윤계순, 윤도영, 윤명숙, 윤명호, 윤미선, 윤선희, 윤성옥, 윤승현, 윤연숙, 윤진기, 윤일식, 윤준기, 윤지애, 윤지현, 윤창순, 윤현옥, 윤혜경, 윤혜영, 은명은, 은민희, 의료원측구동아리, 이경중, 이경준, 이경환, 이경희, 이고운, 이공주, 이관우, 이 광, 이광연, 이광철, 이규성, 이규원, 이금덕, 이금주, 이기영, 이기범, 이기원, 이기림, 이남경, 이도규, 이명애, 이명원, 이명희(11서), 이명희(소화기), 이명희(11서), 이미경(혈액투석), 이미경(의무), 이미숙(신경외과), 이미숙(외래간호), 이미애, 이미영, 이미자, 이미정, 이미진, 이미화(방사선종양), 이미화(응급병동), 이민선, 이민영, 이민정, 이병호, 이복희, 이봉연, 이상미, 이상순, 이상재, 이상진, 이상훈, 이상미, 이상연, 이선주, 이선희, 이성영, 이성희, 이세은, 이소라, 이소영(9서), 이소영(외래간호), 이수연(5CU), 이수연(외래간호), 이수영, 이수진, 이수환, 이숙영, 이순덕, 이순애, 이순영, 이순자, 이위규, 이승남, 이승배, 이승화, 이승희, 이신혜, 이양서, 이연정, 이연주, 이연희, 이영돈, 이영아, 이영애, 이영주, 이영희, 이예리, 이원옥, 이위규, 이우상, 이우정, 이윤정(8동), 이윤정(7동), 이윤주, 이윤환, 이은선, 이은수, 이은영, 이은주, 이은하, 이은호, 이은희, 이은희(9동), 이은희(사회사업), 이익윤, 이인기, 이인선, 이재명, 이재민, 이재옥, 이재상, 이재훈, 이재호, 이정선, 이정순, 이정선, 이정애(6동), 이정애(안체유전체), 이정우, 이정우, 이정임, 이정훈, 이정희, 이제희, 이종찬, 이종필, 이주민, 이주원, 이지선,

이지연, 이지현(교학), 이지현(영양), 이지현(응급CU), 이진희, 이찬희, 이창민, 이창수, 이창준, 이철주, 이태경, 이평애, 이필오, 이한식, 해 리, 이현아, 이현우, 이현정(응급병동), 이현정(재활), 이현정(7동), 이현희, 이희구, 이혜경(영양), 이혜경(뇌졸중집중치료), 이혜미, 이혜선, 이혜정, 이호선, 이홍남, 이홍섭, 이효성, 이화숙, 이희정, 인수경, 임기영, 임동민, 임문채, 임미선, 임미현, 임선교, 임선희, 임세원, 임승관, 임승수, 임신영, 임신정, 임연희, 임영애, 임인경, 임재현, 임정화, 임지영, 임현이, 임홍서, 장가람, 장경자, 장경자, 장기현, 장기홍, 장대현, 장도숙, 장봉희, 장석준, 장영미, 장영선, 장영실, 장영주(외과연구구), 장영주(시설), 장윤미, 장은하, 장은희, 장지연, 장창희, 장춘미, 장학수, 장혜정, 전기홍, 전갑수, 전명자, 전미선, 전미영, 전수미, 전용선, 전용정, 전정임, 전창훈, 전하진, 정경화, 정계영, 정권순, 정규림, 정망래, 정명숙, 정문희, 정미옥, 정미현, 정민서, 정민석, 정민환, 정병근, 정보배, 정상민, 정상호, 정서진, 정석관, 정선용, 정세화, 정수향, 정숙영, 정순옥, 정승교, 정승아, 정영훈, 정영기, 정영선(소아), 정영선(4서), 정영훈, 정옥희, 정용서, 정유식, 정윤경, 정윤석(내분비), 정윤석(응급), 정윤선, 정윤자, 정은정, 정재현, 정주영, 정진주, 정준미, 정해근, 정형숙, 정혜련, 정혜진, 조남한, 조상미, 조선미(정신건강), 조선미(외래간호), 조선화, 조성란, 조성숙, 조성원, 조소영, 조승안, 조승중, 조영자, 조원섭, 조원관, 조은미, 조은숙, 조은혜, 조인애, 조일지, 조재호, 조주희, 조진영, 조재영, 조철현, 조 현, 조혜성, 조혜정, 주경원, 주남서, 주인수, 주일모, 주희재, 지구석, 지수용, 지춘화, 진선애, 진영민, 진우림, 진정원, 진주현, 차수연, 차중호, 차주옥, 차태자, 채대민, 채수진, 천정희, 최경숙, 최규선, 최남혜, 최도관, 최문정, 최미선, 최미희, 최병주, 최병호, 최상천,

최선정, 최성우, 최성주, 최성희, 최소연, 최수경, 최수정, 최순자, 최승호, 최 식, 최아영, 최애라, 최영화, 최유림, 최원선, 최은경, 최은아, 최은진, 최은향, 최은희, 최인숙, 최재연, 최정순, 최중보, 최진희, 최현일, 최형선, 최혜진, 최 호, 최홍영, 최희석, 추황보, 탁승제, 표금선, 하중수, 한경진, 한경화, 한기자, 한상숙, 한상희, 한성우, 한성환, 한승진, 한승환, 한아람, 한재은, 한재호, 한정숙, 한지선, 한지은, 한진이, 한현주, 한형화, 한화영, 함수미, 함정화, 함주희, 함형미, 해부학교실, 허 군, 허기옥, 허남정, 허은희, 허미경, 허수정, 허은주, 허정희, 허지은, 허 훈, 현영선, 현석무, 홍근희, 홍근숙, 홍금숙, 홍명렬, 홍미라, 홍선영, 홍수미, 홍수정, 홍순정, 홍순희, 홍유선, 홍윤주, 홍은주, 홍은진, 홍주연, 홍지민, 홍진희, 홍창형, 홍창호, 홍형숙, 홍혜림, 홍혜진, 황경애, 황경주, 황미란, 황미영, 황보영, 황선기, 황선애, 황성철, 황우섭, 황원선, 황윤익, 황원렬, 황인정, 황정미, 황재철, 황지현, 황진순
(동문, 학부모)
간호대12회졸업생, 권순오, 권영수, 김경수, 김민수, 김상태, 김중후, 김홍중, 노동일, 박승현, 박원섭, 방종경, 백상국, 백순민, 서승환, 손지용, 안정현, 원종일, 윤서준, 유기동, 이동권, 이 면, 이민형, 이승희, 이인창, 이호영, 임석철, 정남철, 최기혁, 한승주, 한은구, 허창범
(일반)
김기현, 김민서, 김성일, 김현영, 김형중, 무기명6, 박순애, 방성영, 손덕식, 송민경, 송옥미, 양현철, 오영란, 윤미림, 윤태림, 이숙민, 이영순, 이영희, 이재호, 이정훈, 임달수, 진병호, 조선혜, 최 동진, 최동훈, 최수영, 최원진, 최희라, (주)경진심유, (주)아비스간병인협회

아주대학교병원 외래진료 시간표

(2013년 3월 1일 현재)

아주대학교병원
주요 전화번호 안내

- 대표전화 : 1688-6114
- F A X : (031) 216-6656
- 전화예약 : (031) 219-5451
- 고객상담실 : (031) 219-4242
- 종합안내센터 : (031) 219-5500~1
- 외국인안내 : (031) 219-4311
- 응급의료센터 : (031) 219-7700
- 건강증진센터 : (031) 219-5555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직업 환경 의학 5644	이경중	연구년(8월31일까지)		직업성 질환,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
	박재현	월, 목		직업성 질환	
	민경복	수		직업성 질환, 환경성 질환	
	원본진료	월-금		직업성 질환	
가정 의학 과 5959	이득주	월, 수, 목	화	갱년기, 노화관리, 류마티스	★
	김광민	화, 금	목	남성갱년기, 피로, 노화관리	★
	박재현	화, 목	월, 금	여성갱년기, 스트레스, 가족상담	★
	김범택	월, 목	수, 금	골다공증, 갱년기, 대사	★
	주남석	금	수	비만, 금연클리닉, 건강증진	★
	조두연		목	건강증진, 피로	★
	김규남	화, 금	월, 수	건강증진, 피로	★
	이승화		목	건강증진	★
	박수정	화	금	건강증진, 갱년기	★
	최성진	목		건강증진	★
	이숙연	수		건강증진	★
	최정민	금		건강증진	★
박시은		화	건강증진	★	
서상욱		수	건강증진	★	
원본진료	월, 화	월-금	건강증진	★	
치과 5969	백광우	화, 수, 목, 금*	월, 수, 금*	전정치료, 치아우식증치료, 장애우치료, 소아치과	★
	정규립	화, 목, 금	화, 목, 금*	치열교정, 설측교정, 태방교정, 금속교정	
	이정근	화, 수, 목	월, 목	임플란트, 아안면기형, 외상	★
	송승일	화, 금*	월, 화, 목	턱관절 장애, 임플란트, 악교정 수술	
	허승룡	화, 목, 금*	화, 목, 금*	고정성·가철성 보철, 임플란트보철, 심미보철	
	홍성택	월, 화, 수, 목*	화, 목, 금*	치아우식증, 신경치료	★
	한금미	월, 화, 수, 금*	월, 화, 수, 목	잇몸염증, 치주수술, 치은성형, 임플란트	★
	방강미	월, 수, 금	금	임플란트, 구강악안면외상, 턱관절 질환	
	남경연	월, 수*	월, 수, 목, 금	치열교정, 설측교정, 예방교정, 금속교정	
	서미현	수*	월, 수*	턱관절 질환, 구강악안면질환	
	공은경	월, 금*	수*	소아자정형, 소아보존치료	
	원본진료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요우만 초진가능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야간	세부진공	비고
응급 의학 과 7777	조준필	수, 목	화		외상외과, 응급질환	
	정운석	화	수	목(1,4주)	소생의학, 중독학, 응급질환	
	이국중	금	월, 수		외상외과, 외과계 응급질환	
	민영기	월	화	목(2,3주)	응급질환, 중환자의학, 중독학	★
	김기운	금	월, 화, 금(1주)		응급질환, 소생의학	
	최상천	목	금	월	응급질환, 중독학	
이지숙	월	수	금	응급질환, 소아응급		
박은정	수	목	금	응급질환, 소생의학		

▲ 응급의학과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순번대로 진료합니다.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응급 응급 5979	손영배	화, 수, 금	월, 목	혈액내분비질환, 유선종양질환, 갑상선, 전선 및 갑상선암 유선종양	
	원본진료				
확진 예방 6088	신윤미	월, 목	화, 목	소아·청소년 정신과, 턱 장애, 자폐장애	
	조선미	월, 수	월, 수	심리검사 프로그램	
신경 과 5986	김도원	화, 수, 금	화, 수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
	양종민	월, 목	월, 목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파킨슨병, 파킨슨병	★
원본진료	박권식	금	금	진단내신상, 대상포진 후 통증, 신경병증, 척추관협착증	★
	원본진료	월, 금	월, 화, 수, 목		★

는 웰빙센터에 위치한 진료과입니다.

<전문클리닉 진료>

진료과	전문클리닉명	의사명	오전	오후	비고
소화기 내과	간암클리닉 5976	조성원	월, 화, 목		
		정재연	금	화, 목	
점막하 종양 클리닉 5976		원희정	월, 금	화	
		김진홍	화, 목	수	
순환기 내과	심부전 및 관막질환 클리닉 5717	이기명	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김진홍	화, 목	수	
감염 내과	여행자 예방접종 클리닉 4730	이기명	월, 수	수	
		황재철	목	월, 금	
암외과 내과	벌독(곤충독) 알레르기클리닉 5902	조종관	수, 금	월	
		정재연	월, 화, 목	월	
암외과 내과	관절염클리닉 4310 / 5902	김진홍	화, 목	화, 금	
		남동호	월, 목	화, 금	
류마티스 내과	루푸스클리닉 4310	서창희	화, 목, 금	월	
		김현아	화	화	
소아 청소년 내과	성장클리닉	황진순	목	화, 목, 금	
		정신경 외과	공황장애 클리닉 5814	임기영	금
외과	대장항문 클리닉 5758 진료접수 Hot Line 5200	서광욱	화, 금	수	
		오승업	화, 금	목	★
흉부외과	하지정맥 류클리닉 5752	이광재	화, 금	목	
		이철주	월, 화, 금	금	
신경외과	뇌졸중 혈관내 수술클리닉 5664	홍우선	목	월, 화	
		임상현	수	수, 목	
신경외과 성형외과	두개안면 기형 수술클리닉 5664	김신용	수	화	
		임용철	화, 목	화	
성형외과 5614	구순구개 열클리닉 안면 윤곽 미용클리닉	문수한	화		
		박동하	수	목, 금	
파부과 성형외과	피부 종양 클리닉 5614, 5917	김유찬	화	화	
		이일재	월	목	
산부인과	불임 및 습관성 유산 클리닉 5597	황정주	화, 수	월, 화	
		김미란	월	화, 목	
안과	시력교정 클리닉 5673	양홍석		목(예약)	
		국경훈	화	월, 목	
이비 인후 과	난청 클리닉 5742	정연훈	화	수, 목	★
		박현이	금	수, 목	★
비뇨 기과	요실금 클리닉 5585	김철호	월	월	
		김철호	수(2,4주)	월	
재활 의학과	아동 재활 클리닉 5802	김철호	월	수, 금	
		김철호	수(2,4주)	월	
가정 의학과	비만 클리닉 5959	김범택	월, 수, 목	수, 금	★
		주남석	수, 목	목	★
치과	인공치아 이식 클리닉 5869	주남석	금	월	
		송승일	화	월	
치과	턱관절 장애 클리닉 5869	송승일	금	월	
		송승일	금	월	

<센터 진료>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진료과	세부진공	비고	
위암 센터 4181	조종관	화	수	외과	위암, 위장 및 복부질환		
	한상욱	수, 금	월	외과	위암, 위장 및 복부질환		
	허훈	월, 목	금	외과	위암, 위장 및 복부질환		
	변철수	수	월, 수, 금	외과	위암, 위장 질환, 급성복통, 지방종		
	이기명	(월), (수)	(수)	소화기내과	위암, 위장 질환, 대장 질환		
	임신교	(목)	(화), (금)	소화기내과	대장암, 대장·위장질환		
	최진혁	(화), (수), (금)		중양혈액내과	두경부암, 식도암, 폐암, 위암		
	강석운	(월)	(목)	중양혈액내과	각종 고형암, 위암, 대장암, 폐암, 담도암		
	노요규	(월), (수), (금)	(수)	방사선종양학과	폐암, 소화기암, 간담도암		
	정재연	월, 화, 목	화, 목	소화기내과	간질환		
	정재연	금	수	소화기내과	간질환		
	간 센터 7431	장은정	수	월, 금	소화기내과	간질환	
김순선		목	월, 금	소화기내과	간질환		
정재호		수	월, 금	소화기내과	간질환		
왕희정		월, 금	화	외과	간이식, 간담, 간내결석, 담도		
김봉관		해외연수중	화	외과	간이식, 복강경간수술, 간담, 담도암	★	
박용근		화	월, 금	외과	간이식, 복강경, 로봇간담, 담도암	★	
대 장 암 센 터 5758		서광욱	목	월, 목	외과	대장암, 직장암, 양성항문질환	★
		오승업	해외연수중	수, 목	외과	대장암, 직장암, 양성항문질환, 로봇수술	★
		이광재	(화), (금)	(목)	소화기내과	대장암, 대장·위장질환, 기능성 질환	★
		임신교	(월), (수)	(월), (금)	소화기내과	위암, 위장 질환, 대장 질환	
		강석운	(월)	(목)	소화기내과	대장암, 대장·위장질환	
		이현우	해외연수중	수, 목	중양혈액내과	각종 고형암, 위암, 대장암, 폐암, 담도암	
	안미선	(화), (목), (금), (수)	(월), (금)	중양혈액내과	각종 고형암, 위암, 대장암, 폐암, 담도암		
	전미선	(화), (목), (금), (수)	(월), (수)	방사선종양학과	소화기암, 폐암, 간담도암, 피부암		
	노요규	(수), (금)	(월), (수)	방사선종양학과	소화기암, 폐암, 간담도암, 피부암		
	황성철	월, 화, 금	목	호흡기내과	폐암, 폐결핵, 천식, 만성기침		
	박광주	화, 금	월, 수	호흡기내과	폐암, 만성폐질환, 폐결핵, 중환자 치료학		
	폐 센 터 4730	신승수	월, 목	화, 금	호흡기내과	폐암	
박주현		화, 금	수, 목	호흡기내과	호흡기질환, 간질성폐질환, 폐결핵		
이규성		수	화, 목, 금	호흡기내과	호흡기질환, 중환자 치료학		
정우영		목	월, 수	호흡기내과	호흡기질환, 중환자 치료학		
정윤정		수	금	호흡기내과	호흡기질환		
최호		화, 금	화	흉부외과	폐암, 중격동질환, 다한증		
최진혁		(화), (수), (금)		중양혈액내과	두경부암, 식도암, 폐암, 위암		
이현우		해외연수중		중양혈액내과	각종 고형암, 위암, 대장암, 폐암, 담도암		
안미선		(화), (목), (금)	(월), (금)	중양혈액내과	각종 고형암, 위암, 대장암, 폐암, 담도암		
오영택		(월), (화)	(화), (목)	방사선종양학과	뇌수종양, 폐암, 소화기암, 전립선암, 림프종		
노요규		(수), (금)	(월), (수)	방사선종양학과	폐암, 소화기암, 간담도암, 피부암		
유 방 암 센 터 4744		정웅식	화, 수, 금	금*	외과	유방질환 및 유방암 *은 병으로 시행된 서명	
	김구상	월, 목	수, 금*	외과	유방질환 및 유방암 *은 병으로 시행된 서명		
	홍우성		수, 금	외과	유방질환		
	박명철	(월), (수), (금)	(목)	성형외과	유방성형, 소아기형, 미용성형		
	강석운	(월)	(목)	중양혈액내과	유방종양		
	안미선	(화), (목), (금)	(월), (금)	중양혈액내과	각종 고형암, 위암, 대장암, 폐암, 담도암		
	전미선	(화), (목)	(월)	방사선종양학과	유방종양		
	유희석	월, 수	수	산부인과	부인암	★	
	장석준	화, 금	월, 화	산부인과	부인암, 복강경, 요실금		
	백지훈	수	수, 목, 금	산부인과	부인암, 부인암,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공태욱	월, 화, 수	수	산부인과	부인암, 부인암, 복강경수술	★	
	전미선	(월), (화), (목)	(월), 화	방사선종양학과	부인암		
심 혈 관 센 터 5717	탁승제	수	수	순환기내과	관상동맥질환, 심근경색, 심정맥질환, 심정맥질환		
	신준환	월, 목	화	순환기내과	관상동맥질환, 심근경색, 심정맥질환, 심정맥질환		
	황교승	화, 목	월	순환기내과	관상동맥질환, 심근경색, 심정맥질환, 심정맥질환		
	윤영호	화, 목	수	순환기내과	관상동맥질환, 심근경색, 심정맥질환, 심정맥질환		
	최소연	월, 수	목	순환기내과	관상동맥질환, 심근경색, 심정맥질환, 심정맥질환		
	최병주	화	월, 목	순환기내과	관상동맥질환, 심근경색, 심정맥질환, 심정맥질환	★	
	임홍식	해외연수중	수	순환기내과	관상동맥질환, 심근경색, 심정맥질환, 심정맥질환	★	
	양형모	월	수, 금	순환기내과	일반 심장질환 질환		
	박진선	수, 금	목	순환기내과	일반 심장질환 질환	★	
	서경우	금	화	순환기내과	일반 심장질환 질환	★	
	최홍우	수	금	순환기내과	일반 심장질환 질환	★	
	신정숙	금	화	순환기내과	일반 심장질환 질환	★	
심 혈 관 센 터 5752	이유홍	금	화	순환기내과	일반 심장질환 질환	★	
	박세준	월, 수	수	순환기내과	일반 심장질환 질환	★	
	이철주	(월), (화), (금)	(금)	흉부외과	상인상외과, 흉관외과, 흉벽질환, 흉벽질환		
	홍우선	(목)	(월), (화)	흉부외과	상인상외과, 흉관외과, 흉벽질환, 흉벽질환		
	임상현	(수)	(수), (목)	흉부외과	상인상외과, 흉관외과, 흉벽질환, 흉벽질환		
	민병철	화, 금		부도관절 연골재생			

()로 표기한 요일은 진료과 진료입니다.

1. 진료시간표는 각 과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는 특수진료입니다.
3. *는 세부진공만 진료합니다.
4. ■은 추가비용징수 선택진료의사입니다.
5. ★는 진료시간이 변경된 의사입니다.
6. 전화문의는 031+219+해당 진료과의 번호를 누르십시오.

토요일 선택진료 운영 안내

* 토요일에도 선택진료 의사가 외래환자를 진료합니다.
(*표가 있는 진료과는 토요일 진료를 시행합니다)

외래진료 접수 시간

- * 평 일 오전 8:00 ~ 오후 4:00
- * 토요일 오전 8:00 ~ 오전 11:30

전화예약 (031-219-5451)

*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초진 시), 진찰권 번호(재진 시)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약 (www.ajoumc.or.kr)

* 아주대학교병원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진료예약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차별실 운영 안내

- * 1층 통합검사실: 평일(월~금) 08:00~18:00, 토요일 휴무
- * 2층 외래차별실: 평일(월~금) 06:30~17:00, 토요일 08:00~12:30
- * 웰빙센터1층 통합검사실: 평일(월~금) 08:00~17:00, 토요일 휴무

셔틀버스 운행 노선

- * 병원 현관 → 아주대학교 정문(교문 서점) → 우리은행 → 우만신성아파트(미소지움) → 삼성생명빌딩(동수원



JCI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AJOU
UNIVERSITY
HOSPITAL

World Class Hospital, World Class Safety

국제 의료기관 인증 병원

JCI 인증은... 아주대학교병원이 국제적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2011년 6월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JCI,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JCI 인증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평가기관인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에서
전 세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엄격한 국제표준 의료서비스 심사를 거친
의료기관에게만 발급하는 인증제도입니다.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JCI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퇴원까지
치료의 전 과정에 걸쳐 총 1,222개 항목에 대한 세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에서
세계적 표준을 충족하여 국내외 의료계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